

국가인권위원장 “북한인권재단 조속 출범해야”

북한인권법 10주년, 국가인권위 성명 발표
북한 주민 인권 보호 위한 국가 책임 강조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이행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최근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계기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주민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인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 10주년… 제도 이행 점검 필요
안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체계

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명문화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 역시 보편적 인권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했다. 그는 법에서 북한인권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취지와 약속이 충분히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핵심 제도 가운데 하나로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이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한 상황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장기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이 북한인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뉴스시스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지적한 北인권 침해 지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발생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나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

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25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각종 통제 법률이 강화되면서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이 더욱 위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으며 해외 파견 노동과 군사적 동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 분쟁 관여로 확대되는 北인권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군 파병 논란은 북한 인권 문제가 단순히 북한 내부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북한이 무기 지원이나 군 파병,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국제 분쟁에 관여하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권 침해 문제는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국제 인권 규범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북한인권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중심 접근과 국제 인권 규범에 기반한 정책 수립,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제 실종과 강제 송환, 집단적 처벌 등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원칙이 북한 인권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촉구… 국제사회 협력 강조

안 위원장은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이 단순한 기념의 시간이 아니라 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국제사회가 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때 북한인권법이 지향하는 목적이 실제로 살아 있는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법정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이사 추천을 포함한 설립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북한 주민 역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권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가 정파적 갈등을 넘어 인권의 원칙과 피해자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발표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박용국 기자

일본 2심 법원도 통일교 해산 명령... 청산 절차 돌입

고액 현금 피해 인정... 종교법인 지위 상실·재산 청산 절차 본격화

일본 법원이 고액 현금 논란에 휩싸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해산 명령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교단은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하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도쿄고등재판소는 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제기한 해산 명령 청구 사건에서 1심인 도쿄지방법원 판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자들 상대로 한 위법한 현금 권유가 이어졌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해산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단이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번 2심 판결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현금 피해자에 대한 변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종교법인 자격이 박탈되면서 세계 해택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종교 활동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임의 중

교단체 형태로는 존속할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정연합이 1980년대 이후 약 40년간 조직적으로 고액 현금을 권유해 최소 1천500명 이상에게 약 204억엔(한화 약 1천9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복리를 크게 해쳤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해산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음진리교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된 단체들이다.

교단 측은 2009년 ‘준법 선언’ 이후 자정 노력을 이어왔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39억엔 규모의 보상을 실시했다며 해산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교단은 최근 직원 약 1천200명 중 500명가량을 조기 퇴직시키고 수백억 원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기준 교단 자산은 약 1천181억엔(약 1조1천억원)



일본 도쿄에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본부 ©Wikimedia Commons

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됐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금물살을 탔다. 피의자가 어머니의 가액 현금으로 가정이 파

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면서, 교단의 현금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고, 이를 계기로 문부과학성이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가정연합 측은 “부당한 판단”이라며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포함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뒤집을 경우 청산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현행 종교법인법에 따라 2심 판단만으로도 집행은 우선 이뤄지게 된다. 김진영 기자

외교부, 중동 상황 관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

외교부는 심각한 중동 정세와 관련,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정부-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외교부에서 영사안전국과 이종동국 등이, 선교단체는 교단선교부와 한국외국기관리재단, 중동지역 한인선교 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윤 국장은 현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귀국을 위해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재외공관과 함께 적극 소통하며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우리 선교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 지역 내 기존 여행금지 및 출국 권고 지역에 더해 3월 2일 이후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그는 해당 국가에 체류 중인 선교사들이 안전을 위해 가능한 조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현장의 모습. ©외교부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교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동 기자

하메네이 사망에...이란 ‘종교 자유’ 위해 기도 >> 8면

김포 교회들, ‘2026 크로스로드 in 김포’ 전개 >> 24면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도료 / 라텍스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헨리 닷지 아펜젤러, 3·1절 107주년 맞아 건국훈장 애족장 수훈



최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헨리 닷지 아펜젤러 건국훈장 애족장 수훈 감사 예배에서 증손녀 로라 아펜젤러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다. ©배재학당

조선 근대화와 복음화에 헌신한 선교사 가문의 후예 헨리 닷지 아펜젤러 목사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훈장은 증손녀 로라 아펜젤러가 대신 수령했다. 고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의 아들인 그는 서울 정동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부친의 뒤를 이어 교육과 선교 사역에 힘쓰며 일제강점기와 광복, 한국전쟁에 이르는 격동의 시대를 한국인들과 함께했다. 미국에서 수학한 뒤 1917년 선교사로 다시 한국을 찾은 그는

1920년 배재학당 교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31운동 1주년을 기념한 학생 시위와 관련해 책임을 물어 파면되는 일을 겪었다. 이후 복직한 그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민족의식을 함께 가르치며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힘썼고, 이는 610만 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 등 항일운동의 흐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출국당한 뒤에는 미국에서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광복 이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신탁통치에 반대하며

자주적 정부 수립을 지지했다. 한국전쟁 시기에는 전쟁고아와 피란민을 돕는 구호 활동에 헌신했으며, 과로 끝에 세상을 떠났다. 생전 “나의 뼈를 사랑하는 한국 땅에 묻어 달라”는 뜻을 남겼고, 유해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됐다. 수훈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는 서울 정동의 정동제일교회에서 지난 1일 열렸다.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교회 측은 아펜젤러 부자의 신앙과 교육 유산을 되새기며 그의 공적을 기렸다.

로라 아펜젤러는 인사말에서 “교회는 소속감을 잃기 쉬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쉽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계속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헨리 닷지 아펜젤러는 30년 넘게 한국에서 교육 선교와 민족 계몽, 외교적 지지 활동, 전쟁 구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헌신을 이어간 선교사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삶은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 사회의 역사적 전환기마다 동행하며 책임을 감당한 사례로 남았다. 노형구 기자

김정석 감독회장, 국제월드비전 앤드류 몰리 총재와 환담

국제 구호·선교 협력 논의... “복음이 세상 변화의 핵심”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 한국을 방문한 국제월드비전 앤드류 몰리(Andrew Morley) 총재를 만나 국제 구호와 선교 사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제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설립돼 현재 100개 이상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구호개발 NGO로, 어린이 권리와 복지를 중심으로 긴급구호, 지역사회 개발, 교육·보건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김 감독회장은 과거 한국월드비전 이

사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몰리 총재와 여러 차례 교류하며 국제 구호 현안과 한국 월드비전의 위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사 재임 시절에는 잠비아 사업장을 방문해 조흔 피해 소녀들을 지원하는 사역에 참여하기도 했다. 영국 성공회 성직자인 앤드류 몰리 총재는 이날 자리에서 “월드비전은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복지와 구호,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하

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구호 활동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도 동석했다. 조 회장은 광림교회가 북한에 세운 국수공장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 구상을 설명했다. 이에 김 감독회장은 감리회의 관심과 서부연회를 통한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

다고 밝혔다. 감리회와 월드비전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제 구호 및 선교 사업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세계 각지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국제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확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영 기자



국제월드비전 앤드류 몰리(Andrew Morley) 총재(왼쪽)와 김정석 감독회장 ©기감

영국서 순직한 오성훈 목사, 국내 운구... ‘한국교회 통일선교장’ 염수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빈소 마련... 6일 사랑의교회서 천국환송예배

지난 2월 14일 영국에서 순직한 오성훈 목사(사진)(향년 56세)의 시신이 국내로 운구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에 빈소가 마련됐다. 장례는 ‘한국교회 통일선교장’으로 거행된다.



장례예배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은혜채플에서 드리며, 장지는 하늘문 추모공원이다. 고인은 1969년 7월 8일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국립창원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Th.M) 과정 중이던 2001년 4월,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네트워크(PN4N)’를 통해 복음적 통일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다. 이후 목사안수를 받고 조은교회 담임을 거쳐 예심성결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했으며, ㈜포앤복스 대표이사, 월간 ‘통일코리아’ 발행·편집인,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3대 회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통일선교훈련원 초대 사무총장, 숭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초빙교수, 한국교회통일선교교단협의회 정책

위원, 통일소망선교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교회 통일선교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 특히 2017년 7월 22일부터 소천 직전까지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3대 사무총장으로 섬기며 국내외 교회를 잇는 연합기도 운동을 이끌었다. 고인은 생전 복음적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의 출발점에 대해 “한국교회가 이념적 대결과 관점 차이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남과 북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겠는가 하는 마음을 하나남겨서 주셨다”고 했다. 이어 “사역으로 하나 되는 것은 어렵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은 교단과 단체를 넘어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사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한국교회와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가 연합해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으로, 2004년 부흥한국과 사랑의교회 대학부의 연합기도모임을 계승해 2011년 3월 31일 31개 북한선교단체가 연합해 제출했다. 현재 국내 34개 지역과 해외 26개 지역에서 85개 참여단체가 함께 기도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인은 해외 마지막 주빌리인 런던 주

빌리 발족을 위해 영국을 방문했다가 급환으로 순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으로는 이연정 사모와 장남 한민(25·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 중동학·교육학 학사, 텔아비브대학교 안보·외교학 석사과정 재학), 차남 일민(23·김포대학교 마케팅경영학 전공)이 있다. 이번 ‘한국교회 통일선교장’은 정성진 목사(주빌리 상임교문)를 장례위원장으로 장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를 비롯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인천동지방회, 기독교통일포럼, 부흥한국,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사랑의교회,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숭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 예심성결교회, 통일소망선교회, 통일코리아협동조합, 한국교회통일선교교단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장례 일정은 3월 4일부터 6일까지다. 위로예배는 4일 오후 4시(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기독교통일포럼 주관), 5일 오전 10시(북한기독교총연합회·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 주관), 5일 오후 6시(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주관)에 각각 진행된다. 입관예배는 5일 오후 4시, 발인예배는 6일 오전 8시, 하관예배는 6일 오후 2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열수된다. 김진영 기자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2026 호주 행축 컨퍼런스’... “영혼 구원 방향성 재정립”

한성교회와 행축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26 호주 행축 컨퍼런스’가 최근 양일간 시드니에서 열렸다. 이번 일정은 시드니교역자협의회와의 협력으로 마련됐으며, 장소는 시드니순복음교회였다. 행사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목회 프로세스를 핵심 주제로 삼아 복음 중심의 목회 철학, 전도 이후 정착을 돕는 시스템, 그리고 다음세대 사역 재건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지 한인 교회 목회자와 사역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후속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행사 기간 중 선교팀은 도심에서 거리 전도와 버스킹 사역을 병행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접한 한 카페 운영자가 팀원들



은 공감을 표했다. 차세대 사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마련됐다. 6개 교회에서 약 40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다음세대를 위한 체계적 양육 모델로서 행축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를 이끈 도원욱 목사는 향후 현지 교회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속적인 훈련과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행축연구소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에서 ‘더 메시지(The Message) 설교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설교자의 영적 성숙과 전달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며, 실제 강단 사역에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교육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내 민족을 구원하라”... 파주 DMZ에 민족복음화 거점 출범

민족복음화운동본부, 파주DMZ본부 발대식 및 대표본부장 취임예배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준비하는 지역 전략 거점이 경기 파주 DMZ 일대에 공식 출범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는 최근 경기도 파주 아름다운교회에서 '8천만 민족복음화운동본부 파주 DMZ본부 발대식 및 대표본부장 취임예배'를 열고, 접경지역을 민족 복음화의 영적 전초기지로 세울 것을 선언했다.

이날 예배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향한 사명을 재확인했다고 주회 측은 전했다.

◆이태희 총재 “DMZ는 복음이 북녘으로 흐르는 통로”

설교는 이태희 총재가 “내 민족을 구원 하라”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 총재는 설교에서 DMZ의 영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DMZ는 단순한 군사적 경

계선이 아니라 복음이 다시 북녘을 향해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통로”라며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회개와 성령의 능력 회복을 통한 본질 회복 운동”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은 교회가 다시 민족 앞에 복음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라며 “연합과 성령의 능력 회복 없이는 민족 복음화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별도 인터뷰에서 파주DMZ본부 출범의 의미에 대해 “파주는 역사적으로 복음의 길목이었다”며 “DMZ에서 시작되는 기도가 북녘을 향한 복음의 물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영적 통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출발선에서 있다”고 덧붙였다.

2027년 대성회를 향한 핵심 과제로는 “교단과 세대를 초월한 연합”을 제시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



행사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성령의 능력이 회복될 때 민족 복음화는 현실이 된다”고 밝혔다.

◆임인기 대표본부장 취임... “선언 아닌 실행으로”

2부 취임식에서는 임인기 목사가 파주 DMZ본부 대표본부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임인기 대표본부장은 향후 지역 교회 연합과 현장 실행 사역을 총괄하게 된다. 임 대표본부장은 “파주는 경계의 땅이

아니라 연결의 땅”이라며 “이곳을 기도의 전초기지로 세우고 실제적인 전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는 ▲지역 교회 연합 기도회 정례화 ▲DMZ 접경지역 복음화 프로젝트 추진 ▲2027년 대성회 참여 교회 조직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임 대표본부장은 “우리는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행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영적 부흥의 전초기지” 비전 선포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인 이태희 목사(왼쪽)가 파주DMZ본부 대표본부장인 임인기 목사에게 추대패를 전달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이날 발표된 파주DMZ본부 비전문은 ▲영적 부흥의 전초기지 ▲연합과 성령의 불길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영적 통일을 핵심 방향으로 담았다. 특히 “조직의 영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다”는 고백과 함께 2027년 대성회를 향한 헌신을 다짐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파주DMZ본부는 접경지역이라는 상징성과 전략성을 동시

에 가진 거점”이라며 “전국 본부와의 연계를 강화해 2027년 대성회를 향한 실질적 준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DMZ본부는 향후 ▲파주 지역 교회 연합 기도 네트워크 구축 ▲DMZ 접경지역 전도·선교 전략 실행 ▲전국 본부 협력 체계 강화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참여 확산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영 기자

고려신학대학원, ‘한국 독립운동과 기독교’ 특별전 개막

고려신학대학원 고신역사기념관, 개교 80주년 맞아 전시 외연 확장



고려신학대학원 고신역사기념관이 개교 80주년 맞아 ‘한국 독립운동과 기독교’를 주제로 특별전시를 마련했다. ©고려신학대학원

고려신학대학원 도서관 내 고신역사기념관이 개교 80주년을 맞아 ‘한국 독립운동과 기독교’를 주제로 특별전시를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고려신학대학원은 제80회 학위수여식이 열린 지난달 24일 오전 역사기념관 앞에서 특별전시 오픈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기획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역사기념관장 이성호 교수가 전시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기존 고신역사기념관이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 운동과 출옥 성

도들의 고난, 해방 이후 고신총회와 신학교의 태동 등 고신총회 중심의 역사를 다뤘던 것에서 나아가, 일제 치하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과 세계로 확장된 한국 교회의 발자취까지 조명하도록 범위를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오픈식에서는 학교법인 정영호 목사의 기도에 이어 주요 내빈들이 참여한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다.

커팅식에는 총회장, 이사장, 신대원장, 사무총장, 총동맹회장, 신학부장, 고신언론사장, 역사기념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이성호 교수의 안내로 전시실을 관람했다.

고려신학대학원은 개교 80주년을 계기로 역사기념관을 교육 현장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를 ‘고신역사

기념관 재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방문을 독려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교회 역사가 정체성 교육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호 교수는 “교회나 기관이 사전에 약할 경우 직접 안내를 맡아 설명할 예정”이라며 “전시 관람이 단순한 관람을 넘어 묻고 답하는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역사기념관 관람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 팝업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장지동 기자

기도행진 브엘세바 합창단, 9월 공식 창단 선포

3월 3일 첫 연습 시작... 회개·성령운동 예배 플랫폼 본격화

2023년 출범한 기도행진 브엘세바 합창단이 오는 9월 공식 창단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합창단은 3월 3일 첫 공식 모임과 연습을 시작으로 창단 준비에 나섰다.

브엘세바 합창단은 유춘종 장로(주예수이름교회)의 제안과 김대성 목사(세계기도운동본부 총재)의 결단으로 시작됐다. 감독에는 박정우 목사(사랑연합교회), 단장에는 최영숙 권사(전 CTS합창단)가 각각 선임되며 조직 체계를 갖췄다.

현재 60여 명의 자원 단원들은 경기도 곤지암에 위치한 한반도중앙기도원에서 매주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합창단은 CBS의 ‘미스바 회개운동’ 메인 합창단으로 참여했으며, 밤샘회개성령집회와 시정 앞 회개운동 성회 등 총 6차례 주요 집회에 초청받아 사역했다.

또한 브엘세바 합창단은 브니엘 오케스트라(단장 이미나 집사), 르호봇 찬양단(단장 도향복 권사)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합창-오케스트라-찬양팀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예배 사역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정기 연습 공간을 마련했으며, 9월 공식 창단을 향한 실무 준비를 본격화했다.

◆김대성 총재 “형식 아닌 영적 선포”

김대성 목사는 “브엘세바 합창단은 단순한 음악 단체가 아니라 기도행진의 영적 흐름 속에서 태어난 예배 공동체”라며 “회개와 기도운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제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창단은 형식적 출범이 아니라 영적 선포”라고 강조했다.

◆박정우 목사 “예배는 공연 아닌 영적 전성”

감독을 맡은 박정우 목사는 음악과 신

학을 겸비한 예배 사역자로,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음악석사, 독일 마그데부르크 국립음대 음악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독일 로스토크 국립대 신학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M.Div. 및 종교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사랑연합교회 담임목사이자 세계기나안운동 국제본부 사무총장, 사마리아 퍼스 한국 지역감독, CBS 기도행진 예술단 감독, 한양대-송실대 객원교수로 활동 중이다.

박정우 목사는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며 “기술 이전에 영성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최영숙 권사 “연습 자체가 기도”

최영숙 권사는 “60여 명 단원 모두가 자원자로, 직업과 연령은 다르지만 예배 앞에서는 하나”라며 “연습 자체가 기도이고 합창은 헌신의 고백”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엘세바 합창단을 통해 기도행진이 더욱 부흥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미나도향복 단장 “무대 아닌 제단” 이미나 집사는 “오케스트라는 배경이 아니라 예배의 또 다른 언어”라며 “악보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연주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향후 색소폰 연주팀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향복 권사는 “합창과 오케스트라, 찬양팀이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일 때 강력한 영적 시너지가 일어난다”며 “우리는 무대 팀이 아니라 제단 팀”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시정 앞 성회 등에서의 사역 경험도 소개했다.

◆“예배 중심 공동체” 창단 비전 선언

브엘세바 합창단은 창단 비전 선언문을 통해 ▲공연 중심이 아닌 예배 중심



지난 2023년 출범 당시 기도행진 브엘세바 합창단 기념사진 ©기도행진 브엘세바 합창단



이천순복음교회 ‘CBS미스바 회개운동’ 성회 참석 사진 ©기도행진 브엘세바 합창단



박정우 감독(맨 왼쪽)과 연습 후 기념사진 ©기도행진 브엘세바 합창단

공동체 ▲회개운동과 성령운동 현장에서 쓰임 받는 제단 ▲세대와 교단을 초월한 연합 모델 구축 ▲한국교회 영적 회복을 위한 섬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향후 합창단은 기도행진 활동과 병행해 9월 공식 창단예배를 드리고, 회개운동 성회 및 기도행진 집회에 정기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 사역과 연계한 예배 프로젝트 추진, 차세대 예배 인제 양성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진영 기자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해저 전력케이블>

감신대-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 현장 중심 신학생 교육 MOU



감신대 유경동 총장(왼쪽)과 태화복지재단 김태진 사무총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화복지재단

“목회와 복지 있는
통합사역 역량 강화...
글로벌 현장학습 공동 운영”

감리교신학대학교와 태화복지재단이 신학생들의 사회복지 현장 체험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최근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글로벌 현장 학습 프로그램(사회복지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사역 역량을 갖춘 미래 사회 명자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학생들이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신앙이 삶과 제도,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고민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이를 바탕

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잇는 인재양성 협력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태화복지재단 본부 및 산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된다. 참여 신학생들은 일정 기간 동안 ▲재단의 사명과 기독교 사회복지 이해를 위한 특강 ▲지역주민 대상 복지사업 참여 ▲사례관리 이해 ▲프로그램 기획·운영 과정 체험 등 실천 중심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수퍼바이저 멘토링을 통해 현장 경험을

성찰하고, 기독교 사회복지의 역사와 정체성을 함께 배우는 교육도 병행한다.

김태진 태화복지재단 사무총장은 “신학생들이 지역사회 한복판에서 복음을 삶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삶을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함께 걸으며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경동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도 “이

번 프로그램은 신학 교육이 교실을 넘어 삶의 자리로 확장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학생들이 목회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는 균형 잡힌 사명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향후 정기적인 운영과 평가를 통해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기독교 대학과 복지 현장이 협력하는 현장 기반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진영 기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3월 전국 55개 도시서 ‘새소식반’ 전도 전개

한국 교회 내 아동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어린이전도협회가 교회 밖 현장을 찾아가는 어린이 전도 사역을 본격화한다. 협회는 3월부터 전국 55개 도시에서 ‘새소식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밝혔다.

‘새소식반’은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가정과 교회는 물론 공원, 놀이터, 학원 등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을 중심으로 찬양과 말씀 암송, 복음 메시지, 선교 이야기,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참여 어린이들에게는 개별 상담을 통해 신앙을 안내하고, 교회와의 연결도 돕는다.

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00여 곳에서 사역이 펼쳐졌고, 수만 명의 어린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중 상당수가 신앙을 결단했으며, 일부는 지역 교회로 이어지는 열매도 맺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각 지역 지회를 통해 정기 감수회를 열고, 어린이 개인 전도 방법과 현장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참가 문의는 협회 대



한국어린이전도협회가 3월부터 전국 55개 도시를 무대로 ‘새소식반’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표번호(02-3401-8291)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노형구 기자

협성대 교양교육센터, 2025학년도 웨슬리언 교양교육포럼 개최

교육비전·운영 사례 공유... 교수·학생 참여 교과목 공모전 시상

교양교육의 방향성과 대학의 교육비전을 공유하는 ‘2025학년도 웨슬리언 교양교육포럼’이 얼마 전 11시 글로벌경영관 109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협성대 교양교육센터가 주관했다.

포럼은 김은비 교양교육센터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서명수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교양교육이 대학 교육의 기초이자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날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웨슬리언 의용합 대학을 위한 교양교육 제도 및 운영 사례’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2025학년도 웨슬리언 교양교육포럼 참석자 기념 사진. ©협성대

진행됐다. 강연은 이진경 교수(웨슬리언 의용합대학)가 맡아 ‘기독교와 인성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이 인성과 가치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웨슬리언즈를 위한 교양교육과 공모전’ 시상 및 수상작 발표가 진행됐다. 학생 부문에서는 ‘지역맞춤·미래수요 및

추향을 주제로 학생이 직접 기획한 교과목이 우수작으로 선정돼 발표됐으며, 교수 부문에서도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된 교과목이 시상을 통해 공유됐다.

이번 포럼은 교수 중심의 교양교육을 넘어 학생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장지동 기자

명지대, ‘유재송 동문 기념 강의실’ 봉헌예배 및 현판식 개최

1억2천만 원 투입해 120석 규모 계단식 강의실 조성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가 최근 인문캠퍼스 MCC관 1층 계단식 강의실(10102호)에서 ‘유재송 동문 기념 강의실 봉헌예배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행사는 김하영 사무지원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개식을 시작으로 말씀과 기도, 설립정신 소개, 경과보고, 감사패 및 꽃다발 전달, 감사 인사, 축도, 현판식과 사진 촬영, 폐회선언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봉헌예배는 총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20석 규모의 강의실 조성 공사를 마무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재송 기념 강의실(10102호)은 인문캠퍼스 MCC관 1층에 위치하며, 바닥 면적 187.23㎡(약 56.64평) 규모의 계단식 구조로 설계됐다.

강의실은 작년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약 한 달간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천장 인테리어나 전열전등 공사, 분전함 및 간선 설비 등을 전면 교체해 안전성과 쾌적성을 갖춘 학습 공간으로 조성됐다.

기념 강의실 조성의 주인공인 유재송 회장은 명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1974년 미국으로 건너가 HBS 및 JDDA 그룹을 설립해 공학 식당 경영 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휴스턴 한인사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와 선교 활동에 헌신해 왔다.

유 회장은 지금까지 약 3억 원의 발전기금을 모교에 기부했다.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기부한 2억 원은 성적 우수자 및 가계 곤란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



명지대, ‘유재송 동문 기념 강의실’ 현판식 기념 사진. ©명지대

됐으며, 2025년에 기부한 1억 원은 이번 기념 강의실 조성에 활용됐다.

임연수 총장은 “유재송 회장의 나눔은 학생들의 배움과 도전을 뒷받침하고, 명지대학교가 지향하는 책임 있는 인재양성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이 강의실이 미래 세대의 성장을 이끄는 배움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예수 세례지 요단강 베다니 세례터 새 단장

성묘교회-예수 탄생 기념교회와 함께 3대 기독교 성지

이스라엘관광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장소로 알려진 요단강 세례터 가스르 엘 야후드(Qasr El Yahud)가 대규모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장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스르 엘 야후드는 요단강 서안에 위치한 베다니 세례터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곳으로 여겨진다(마태복음 3:13-17).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이후 말씀 전파를 비롯한 공생애를 시작한 것에 근거해 개신교는 ‘주현절(Epiphany)’, 천주교는 ‘주님 공현 대축일’을 교회력 절기로 지키며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곳에는 매년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직접 경험하려는 전 세계 순례객 수십만 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방문객 수가 약 1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스르 엘 야후드는 예루살렘의 성묘교회,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기념교회와 함께 이스라

엘을 대표하는 3대 기독교 성지로 꼽힌다.

이 지역은 기독교뿐 아니라 유대교 전통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대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사건(여호수아 3장), 예언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사건(열왕기하 2장),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가 치유받은 사건(열왕기하 5장)과 관련된 장소로 전해진다.

이번 개보수 공사는 이스라엘 관광부가 환경부, 이스라엘 자연공원 관리청과 협력해 약 2,500만 셰켈(NIS·한화 약 115억 원)을 투자해 진행했다. 최근 완공 기념 개장식을 통해 새 단장된 세례터가 공개됐다.

보수 공사를 통해 세례식을 진행하는 순례객들이 요단강으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나무 경사로를 정비했으며, 기



보수공사를 마친 가스르 엘 야후드 전경. ©이스라엘관광청(Shai Isaacs, Israel Nature and Parks Authority)

도용 정자와 운수 사유 시설, 탈의실, 냉난방 설비를 갖춘 대형 신축 건물 및 서비센터 등 방문객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는 날씨와 관계없이 기도회와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강당과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무장애 산책로도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가스르 엘 야후드 세례터는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겨울철) 또는 오후 5시(여름철)까지 운영되며, 폐장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하다. 장지동 기자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뷰:프레임

퍼펙트 슬림뷰 : 베젤리스 설계

클리어 옛지뷰 : 논실리콘 디자인

멀티플 화이트뷰 :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창호 부문 최다 1위(18회) LX Z:in 창호

뉴욕 교계 10여 단체들, 연합 3·1절 107주년 기념예배 드려

대뉴욕지구한인원로목사회(회장 송병기 목사)를 비롯한 10여 개 교계 단체가 1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상철 목사)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번 예배는 원로목사회가 주관했고, 뉴욕 지구한인목사회, 대뉴욕지구 원로성직자회, 뉴욕교역자연합회, 뉴욕목회자기도회, 글로벌여성목사회, 미주여성목사회, 뉴욕한인여교역자회, RCA 교단 뉴욕한인여목회자협의회 등 10여 개 목회자 단체가 협력해 진행됐다. 예배와 기념식 주요 순서는 뉴욕목사회 관계자들이 다수 맡았다.

송병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이준성 목사(뉴욕교역자연합회 회장) 기도, 하정민 목사 성경봉독, 뉴욕목사부부성가

단 '부흥' 찬양, 박희근 목사(뉴욕지구한인목사회 회장) 설교, 이승진 목사 헌금기도, 한문수 목사(전 회장) 축도 순서로 드렸다. 이준성 목사는 기도에서 "107년 전 나라와 민족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독립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셨다"고 했다. 이어 "교계가 어지럽고 뉴욕이 어지러운 시점에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뉴욕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선각자들이 되게 해 달라"며 "107년 전의 그 정신을 이어받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설교를 맡은 박희근 목사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느 1: 4-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1919년 3월 1일의 외침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영혼의 외침이며 신앙의 자유를 위한 성도들의 외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선언서 서명자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당시 독립운동의 중심에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박 목사는 "31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민족의 운명과 함께 울었던 날"이라며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경 역사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며 기억은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언급하며 박 목사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울

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며 "믿음의 사람, 특별히 리더라면 민족의 아픔 앞에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조만식 장로와 주기철 목사를 언급하며 "신앙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외친 믿음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불의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기도는 약한 자의 도피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느헤미야가 기도한 뒤 행동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듯 우리도 기도와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했다.

설교 말미에서 박 목사는 최근 교계 상황을 언급하는 듯한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오늘날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목회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세력들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이때에 저를 뉴욕 목사회 회장으로 세우셨는지 많이 기도한다"며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예배 후에는 31절 기념식이 이어졌다. 김홍석 목사(교협 중경회장단 의장)의 사회로 국민의례를 진행했고, 이광선 강도사의 애국가와 미국국가 제창, 관계더



참가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뉴욕목사회 박희근 회장이 설교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현영갑 목사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린 목사의 독립선언문 요약본 낭독, 31절 노래가 이어졌다. 이어 현영갑 목사(바정회기념사업회 총무)가 삼일절 정신 계승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서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정의·평화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민족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며 자유민주주의의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또한 선열들의 자주독립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평화롭고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만세삼창을 외쳤고, 류승례 목사(아린양개혁장로교회)의 폐회 및 만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대원 기자

UMC 젊은 목회자들, 3·1절을 다시 묻다... "우리의 3·1, 우리의 교회"

연합감리교회(UMC) 뉴욕연회 한인코커스 인종정의동아리가 3월 1일 오후 5시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MET Church)에서 31절 기념 포럼 '우리의 3·1, 우리의 교회를 열었다'.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31운동 107주년을 맞아 젊은 한인 목회자들이 오늘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묻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세 명의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교회가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공동체로서 시대 속에서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 '교회가 일어섰던 날'에서 모나시드 연합감리교회와 퍼스트 스페니시 연합감리교회(First Spanish United Methodist Church)를 섬기는 류영철 목사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 형성된 신앙 공동체가 1919년 거리로 나아가 역사에 참여했다"며 "그때 교회는 기도에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공동체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인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비폭력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라는 네트워크 때문이었다"며 "교회는 구체적인 구조와 자원을 통해 새로운 역사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UMC 뉴욕연회 한인코커스 인종정의동아리가 3·1절 기념 포럼 '우리의 3·1, 우리의 교회'를 개최했다. 패널들이 발표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2부 '교회가 흔들리는 지금'에서는 체셔연합감리교회(Cheshire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 김영동 목사가 "라인홀드 니버가 말한 빛의 자녀의 약점은 순진함이지만, 31운동은 순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양심에 대한 도덕적 선언이 있었지만 동시에 전국 동시 낭독과 조직적 준비가 있었다"며 "도덕만으로 제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알고 정의의 구조를 준비한 운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 역시 정의를 외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조직된 평화와 책임 있는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부 '교회가 선택할 내일'에서는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MET Church) 담임 김진우 목사가 "107년 전 교회에 있었던 것은 프로그램이나 전략이 아니라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 51편을 인용하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전했다. 이어 "성령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교회의 미래를 연다"며 "하나님은 완성된 그릇이 아니라 비어 있는 질그릇을 찾으신다"며 "광장으로 나아가 이웃의 두려움 곁에서는 교회가 교회의 내일"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후에는 패널 토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31운동의 신앙적 의미와 오늘 교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대원 기자

논산훈련소서 2,000여 명 훈련병 합동 진중세례식 거행

연무대 군인교회 주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후원

지난 2월 28일 오후 2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제665차 훈련병 2,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 진중세례식이 거행됐다. 이번 세례식은 논산 연무대 군인교회가 주관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후원해 진행됐다.

이날 예식은 오라엔테이션과 세례식 안내에 이어 1부 예배로 시작했다. 예배는 이석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찬양은 오우철 형제와 한빛찬양팀이 섬겼다. 대표기도는 임완섭 장로가 맡았고, 성경봉독은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이 선포됐다. 설교는 대전새순교회 담임 정정인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훈련병들에게 군 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권면했다. 축도는 이천수 목사가 맡았다.



논산훈련소서 2,000여 명 훈련병 합동 진중세례식이 거행되던 모습. ©추최 측 제공

2부 세례식에서는 세례 사약과 세례 기도가 이어졌으며, 특히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참석한 류당열 목사가 세례식을 위한 특별 기도를 인도해 의미를 더했다. 류 목사는 훈련병 한 사람 한 사람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며,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후 세례 집례가 진행됐고, 영상 편지 상영과 구호 제창, 격려사와 축사 순서가 이어졌다. 기념품 증정과 파송 기도, 기념

활동까지 모든 일정이 질서 있게 진행됐다.

행사 관계자들은 "군선교는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며 "훈련병들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 복무 기간 동안 믿음을 지켜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논산훈련소 합동 진중세례식은 군 복음화의 현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로,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의 기도와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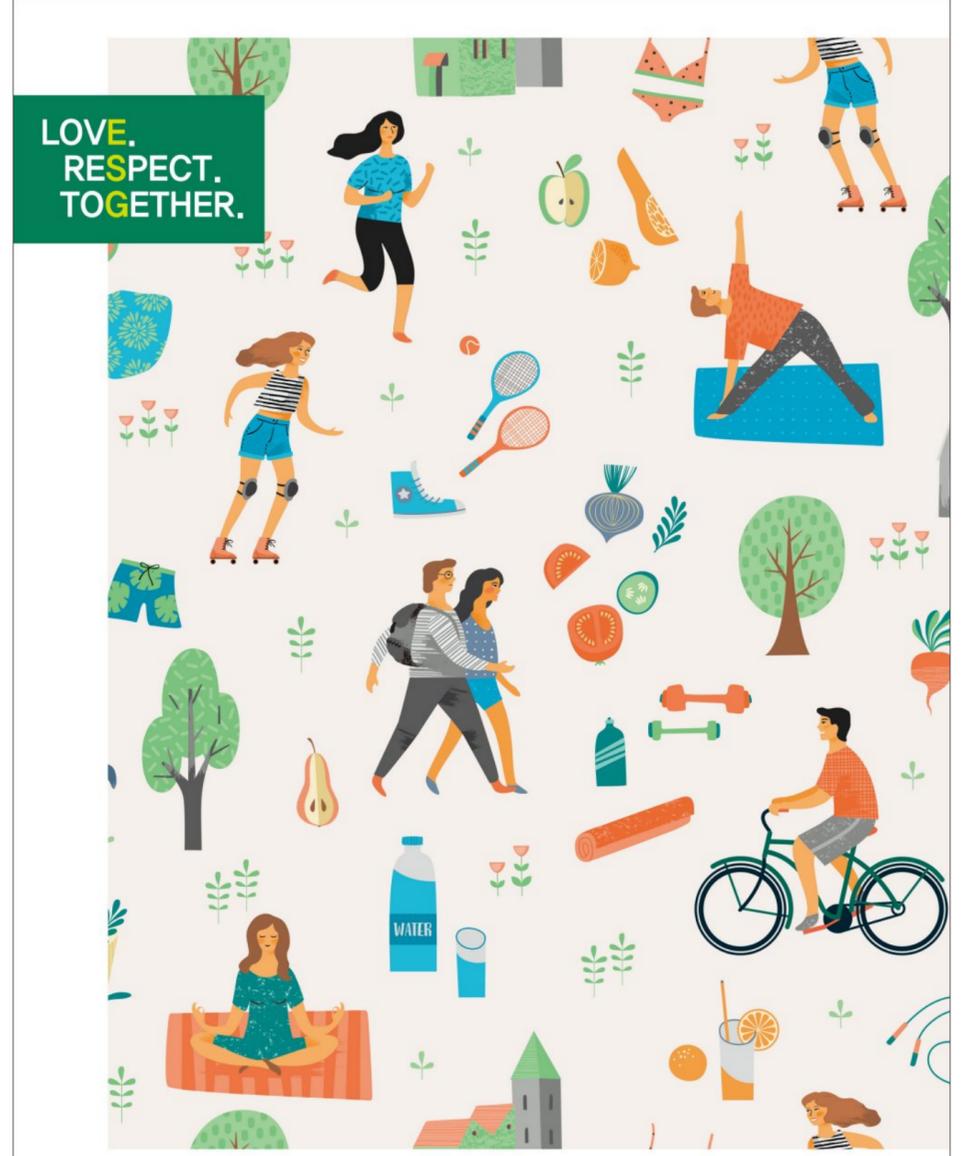
LA사랑의교회, 이혼, 별거의 아픔 겪는 여성 위한 모임

3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오후 6시 30분

LA사랑의교회는 이혼이나, 별거의 아픔 가운데 있는 여성들을 돕고 소망을 발견하며 치유를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카타

데오 모임을 오는 3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한다. 모임은 10주 동안 매주 오후 6시 30분

에 2층 7번 방에서 진행된다. 등록: QR스캔/ 이메일 lasrkatadeo@gmail.com 교재비 \$20, 문과 김민기 목사 714-497-7065, 최태파니 집사(인도자) 213-505-7719 김민선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세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남가주 새소망교회, 13년 은혜 위에, 위로부터 난 지혜로

창립 13주년 감사예배... "하나님의 지혜로 공동체를 세우자"

남가주 새소망교회(담임 김성원 목사)가 3월 1일 창립 13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난 13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렸다.

이날 예배는 김성원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유경현 장로가 대표기도를 맡았다. 특별찬양이 이어진 가운데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봉독은 잠언 29장 18절과 아고보서

3장 13-18절 말씀으로 선포했다. 설교를 전한 이상명 총장은 잠언 29장 18절과 아고보서 3장 13-1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잃을 때 교회와 성도의 삶이 방향을 잃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아고보서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

와 세상적 지혜를 대조했다. 시기와 다름에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된 지혜는 말이나 삶이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또한 이 총장은 지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라고 전하며,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소망교회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붙들고 더욱 굳게 서기를 축복했다.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유한 지혜가 교회를 살린다"며,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가 뿌리가 되는 공동체가 될 때 어떤 시대적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

13주년을 맞은 김성원 담임목사는 "지난 13년 동안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성도 한 사



이상명 총장이 설교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람 한 사람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지난 13년간 교회를 위해 흘린 헌신과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길 믿는다고 말했다.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2017년 9월 지금의 성전(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입했으며, 이후 말씀과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왔다.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의 사명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조셉 리 기자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교회 측 제공

동양선교교회-히즈쇼, '미주 한인교회 교육 생태계 회복 프로젝트' 추진

'이중언어와 한인 정체성'을 담은 VBS 및 교육 콘텐츠 약 400여 한인교회에 제공 예정

미주 한인교회의 신앙 교육 회복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기독교 교육 콘텐츠 전문 기관 히즈쇼와 동양선교교회는 이중언어와 한인 정체성을 담은 신앙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미주 한인교회 교육생태계 회복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히즈쇼는 한인교회 상황에 맞는 한글·영어 버전 교육 프로그램(교사대학, VBS, 복음전도, 성경개관 등)을 제작하고, 동양선교교회는 지역교회 및 커뮤니티에 이를 알리고 배포한다. 2025년 150여 한인교회의 참여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더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약 400여 한인교회에 제공할 계획이다.

시급한 과제로 '잘 준비된 신앙 교육 교재'가 꼽혔다. 이는 사역자의 헌신에만 의존해 온 기존 교육 구조를 넘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미국 내 한인교회 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미주 한인교회가 처한 교육 환경의 특수성이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 다수의 교회가 주일 학교 예배와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혼합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언어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한인 가정의 신앙 문화와 이민 2.3세의 정체성을 함께 담아낸 교육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당 프로그램은 교사 인력과 재정적 여건에 부담을 느끼는 한인교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교사 준비 부담이 줄고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단발성 지원을 넘어 연중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으로 사역을 확대한다. '미주 한인교회 교육생태계 회복 프로젝트'는 1년 동안 4~5개의 핵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매회 신청 교회 가운데 약 100곳을 선정해 신앙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3월에는 '교사대학', 4월에는 'KID VBS 프로그램', 9월에는 '성경개관', 10월에는 '복음전도' 등 온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히즈쇼는 교회학교 교육 콘텐츠 개발과 커리큘럼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이중언어와 한인 정체성을 담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동양선교교회는 미주 한인교회와 히즈쇼는 2025년 '미주 한인교회 VBS 프로그램 지원'을 진행하며 약 150개 한인교회에 영한 이중언어로 구성된 VBS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했다. 해

고 있는 미주 한인교회의 교육 현실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회 가정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교육생태계 회복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세미나와 강습회도 함께 진행된다. 교육 사역을 담당하는 미주 한인교회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 생태계 회복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하는 이병목 목사가 강의를 맡는다. 이병목 목사는 한국 교회학교 성장을 도왔던 히즈쇼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팬데믹 이후 미주 한인교회가 직면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실제 적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회차 세미나는 3월 19일 오후 6시 동양선교교회 비전센터에서 개최된다. 이후 2~4회차 세미나(강습회) 및 자료 신청 일정은 동양선교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지될 예정이다. 신청은 동양선교교회 홈페이지(omc.org/omcmission)를 통해 가능하다. 김민선 기자

조지아 한인 교계, 원로·은퇴 목회자와 선교사 초청 감사 만찬

지역교회 섬김의 본을 보여준 따뜻한 자리

지난 23일 오전 11시, 한비전교회(담임: 이재원 목사)에서 원로목사와 은퇴 목사, 은퇴 선교사 부부를 초청한 감사 만찬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조지아 남침례회 한인교회 협의회가 이어오던 뜻 깊은 모임으로, 올해는 한비전교회가 지역의 은퇴 목회자들을 섬기고자 모든 순서와 음식, 선물까지 정성껏 준비하며 지역교회가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모임은 한 은퇴 원로목사의 소망에서 시작되었다. "함께 사역했던 동료 목회자들과 다시 한 번 식사 한 끼 나누고 싶다"는 바람이 씨앗이 되어 오늘까지 이어졌다.

예배는 한비전교회 주일학교 전도사인 이조이 전도사의 은혜로운 찬양 인도로 시작되었다. 이어 김데이빗 목사(조점명 회장, 와너로빈슨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회중예배는, 박현일 목사(존스보로 한인교회)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이용희 은퇴목사 부부의 특별 연주는 참석자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더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이재원 목사는 누가복음 2장 36-39절을 본문으로 '끝까지 남은 사명'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은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앞에 서는 날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며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감사함으로 예수복음을 전하는 삶을 강조했다.

특송으로는 양유선 집사가 '주의 은혜를 찬양하여, 참석한 원로·은퇴 목사님들의 마음에 깊은 은혜와 위로를 전했다. 찬양은 은혜로움과 경건함 속에서 마음을 감동시키며, 교회의 섬김과 기도 가운데 함께한 동역자들에게도 도전과 격려를 주었다. 광고는 이경우 안수집사

가 맡았으며, 원천호 목사(생명침례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무리한 후 기념 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이어진 2부 식사와 교제 시간에는 한비전교회 목사와 은퇴 성도들이 정성 다해 만든 음식과 준비한 선물을 직접 대접하며 섬김의 마음을 전했다. 음식과 봉사를 준비한 성도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지역의 원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과 감사가 충만했다. 한 봉사자는 "이 자리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오늘을 마치는 순간까지 감사와 은혜가 가득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며, 지역교회가 본이 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었다.

한비전교회는 은퇴 목사와 은퇴 선교사 부부 가정을 위해 참기름·들기름 세트 선물을 준비했으며(후원: 김동환·김신영 집사), 이영표·장안나 집사 가정의 떡을 마련해 따뜻한 정을 더했다. 2부 교제 시간에는 김택태 은퇴선교사가 레크리에이션을 맡아 웃음과 화목이 끊이지 않는 시간을 이끌었다. 오랜 세월 복음을 위해 헌신해 온 사역자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남은 사명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하기를 다짐했다.

조지아 남침례회 한인교회 협의회는 이날 행사를 위해 수고한 이재원 목사와 한비전교회 은퇴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번 만찬은 지역교회가 본을 보여주고, 섬김의 문화를 이어가는 귀한 모델"이라고 했다.

이번 만찬은 귀한 노(老) 목회자의 소망에서 시작되어 지역교회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어진 귀한 전통이다. 찬양과 섬김의 손길, 감사의 눈빛, 그리고 사랑의 섬김이 어우러진 이날의 풍경은 조지아 한인 교계 안에 오래도록 따뜻한 울림과 도전이 되는 본보기로 남을 것이다. 김민선 기자



조지아 한인 교계, 원로·은퇴 목회자와 선교사 초청 감사 만찬을 마치고 기념촬영. ©주최 측 제공

탈퇴공고

온누리비전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를
탈퇴하기를 2026년 2월 8일
교인 총회를 통해 결의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온누리비전교회 교우일동

기독교 유일의 24면 일간지!!

기독일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나요!
https://pf.kakao.com/_QNVAK/friend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독일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발행되는 일간지로서, 기독교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신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53 크로스빌딩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www.cdaily.co.kr

성실기독교공사

개척교회 염가 공사 / 파이프 탑, 종각, 종탑, 대형 십자가 시공, LED 네온 설치, 네온 수리, 완공 후 철저한 A/S 보강

☎(02)923-2466 / HP : 010-5344-2466 / 080-938-0404
<부천지사> (032)349-2466 / FAX : (02)923-2466
홈페이지 http://ss04.barunweb.co.kr

캐슬빌딩사 / tower2466@naver.com

대표 : 박진홍 (성실교회 안수집사)

“선교는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제자(사람)’를 세우는 일이다”(下)

배안호 선교사의 책 사다리(9) '선교지 예배당 건축 이야기'
변창욱, <선교지 예배당 건축 이야기>(도서출판 케노시스, 2022)



3. 온두라스 교회 개척: 무교회 지역의 교회 개척과 예배당 건축 (박명하 선교사)
박명하 선교사는 1991년 10월 PCK 선교사로 중앙아메리카 수

방관자 내지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4. 선교지 교회 개척과 자립: 중국교회와 한국교회 사례 중심으로 (변창욱 교수)



배안호 선교사



온두라스에서 30년 넘게 사역한 박명하 선교사와 현지 성도들. 박 선교사는 은퇴하여 현재 원로선교사로 지내고 있다. ©박명하 선교사



1869년 봉헌된 중국 상하이 홀리트리니티교회. '자립선교'는 이미 147년 전부터 중국 개신교신교사대의 중요한 이슈였다. ©위키미디어

도 온두라스에서 30년 넘게 사역했다. 그는 1992년에 온두라스 최초의 한인교회를 설립, 1997년 예배당 건축을 완공하고, 1996년부터 차례로 신학교 3개를 시작했다. 1999년부터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부터 오지와 정글 및 사막 산악 지역과 도시 인근 지역 200여 곳에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온두라스는 멕시코 반도 남단의 인구 1천만의 작은 나라다. 국토의 80%가 산악 지대로, 300년간 스페인 식민 지배를 받은 후 1821년 독립했다. 문맹률은 50%에 이른다. 1921년에 개신교 선교를 시작해 명목상 인구의 41%가 개신교인이며, 최근에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개신교 숫자가 가톨릭을 능가한 나라이기도 하다. 개신교회는 많으나 장로교회는 하나도 없는 나라이다. 박 선교사는 현지의 연약한 교회들을 돕기 위해 신학교를 설립했다. 신학생 중 차비가 없어 등록이 힘든 이들이 많아, 그들이 거주하는 인근 도시에 신학교를 설립했고 졸업생들에게 디플로마 학위를 수여했다.

1) 박명하 선교사의 교회개척 및 예배당 건축 매뉴얼: 교단 교회를 세우기보다 연약한 현지교회를 도왔다. 교회 장소 선정은 현지 교단이 주관하게 했고, 무교회 지역에 교회를 건축했다. 선교사에게 의존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현지 교인들의 주인 의식을 강화했다. 예배당 부지는 현지 교회가 준비하고, 교회 건축 시 교인들이 몸으로 봉사하게 했다. 건축비의 40% 정도를 현지인들이 먼저 담당하게 했고, 외부 지원은 현지교회의 부족 부분을 채워주도록 했다. 현지교회를 이양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건축하도록 했다. 건축 후에 현지 목회자들과 관계 및 소통과 목회적 돌봄을 지속했다.

2) 박명하 선교사의 사역 평가: 예배당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현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다. 현지 상황에 맞는 적정 규모의 예배당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예배당 건축에서 선교사가 주도권을 쥐지 않아야 한다. 현지 교인들을

1) '자립선교'는 이미 147년 전부터, 중국개신교신교사대의 중요한 이슈: 외국 돈(foreign silver)에 의존하고 있는 현지 교회는 급속도로 붕괴되어 제 기능을 못한다. 중국교회와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에서 예배당 건축과 미션 스쿨, 선교병원 등의 사역을 하며 논의되었던 자립선교 문제 등 역사적 사례를 통해 저자는 선교 현장에서 건강한 자립교회 설립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을 하였다.

1877년 상해 제1회 중국개신교신교사대회에서 볼드윈(S. L. Baldwin, 미국 북감회 선교부) 선교사는 'Self-support of the Native Church'(토착교회의 자립)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하였다. "외국 돈(foreign silver)에 의존하고 있는 현지교회는 돈의 유입이 끊어지면 급속도로 붕괴되어 결국에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중략) 지나치게 많은 돈을 끌어다가 현지교회를 돕게 되면... 병약한 교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p. 192)

이런 구체적인 현지교회의 자립성 문제를 한국교회에 '네비우스 선교방법'이란 말이 존재하기도 전인 150여 년 전부터 선교현장의 중요한 이슈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자립선교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현지 교인들에게 현금하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서평자는 아프리카(탄자니아)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실제로 경험하였다. 현지 교인들은 선교사에게 잘 보이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선교사의 도움을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되레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

더 나아가, "우리 때문에 선교사는 한국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받지 않느냐"고 항변도 하였다. 현지 선교부는 구조 기관이요, 선교사는 구조사업가로 되어있는 구조 속에서, 일방적인 파주기 선교는 마침내 실패로 끝나는 선교가 되고 말 것이다.

2) 볼드윈 선교사가 중국개신교신교사

대회에서 제시한 4가지 실천가능한 자립선교 방안: 첫째, 교인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헌금하도록 가르쳐라. 둘째, 선교사의 도움은 한시적으로만(최대 5년) 제공될 것임을 분명히 하라. 셋째, 현지교인이 감당할 수 있는 사례비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하지 마라. 넷째, 건축비가 많이 드는 외국 스타일의 교회 건축을 피해야 하며, 중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교회 건물을 지어야 한다(p. 194).

13년 후 1890년 상해에서 개최된 제2회 중국개신교신교사대회에서 역시 자립선교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되었다. 메이슨(G. L. Mason, 미국 침례교 연합회) 선교사는 돈 선교가 초래하는 7가지 해악을 발표하였다. 그중에 2가지만 언급해 보려 한다. 첫째, 돈 선교(money mission)는 선교사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 현지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선교사만 기쁘게 하려 할 것이며, 선교사는 회사의 감독(overseer)이나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위험이 있다. 둘째는 돈 선교는 현지인 목회자에게 해악을 끼친다. 책임감 없는 자가 되며 자기의 교인을 업신여기며 자신을 고용한 선교사에게는 비굴하게 굽신거리게 된다는 것이다.

3) 메이슨 선교사가 제시한 선교지 교회와 학교의 3가지 자립방안: 첫째, 현지 교인에게 현금 훈련을 시켜야 한다. 주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행 20:35)고 하셨다. 선교사는 월급 주는 사람(paymaster)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둘째, 선교사 자신이 선교비의 1/10 이상을 현금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교인들이 수입의 십일조를 드리도록 가르쳐야 한다. 셋째, 아무리 가난해도 현금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예배당 건축 때 경제적 여유가 안 될 때 시간을 들여 몸으로 봉사하게 하여라.

4) 중국 개신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

한 1907년 상해에서 열린 제3차 중국개신교신교사대회: 영국의 모리스(Robert Morrison, 1782-1834, LMS) 선교사가 중국에 도착한 지 100년을 기념하는 선교대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 주제도 역시 중국교회를 건강한 자립교회로 세워가기 위한 방법론들이었다.

5) 초기 한국교회 자립선교와 '네비우스 선교' 정책: 네비우스(John Nevius, 1829-1893)는 앞서 본 제2회 중국개신교신교사대회에서 '선교 방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였다. 네비우스는 그의 1854년부터 중국 영파와 산동에서 30여 년 선교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실패와 성공을 당시의 유명한 선교잡지 <Chinese Recorder>(차이니스 레코더)에 기고하였다.

언더우드, 모택 등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1890년 6월, 당시 조선에서 직접 전도 활동을 금지한 상황에서 네비우스를 서울로 초청하여 자립선교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되었고, 그 후 1983년 주한 장로교 선교부는 '네비우스 자립선교방법'을 공식적으로 채택, 수용하였다(배안호, 한국교회와 자립선교, 한국학술정보, 2008, pp. 313-322)

"1891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발표한 선교정책을 보면, 자립 원칙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를 받는 현지인 사역자는 최대한 줄이고, 미션 스쿨인 경우, 교과서 값을 받았고 학비도 무료로 하지 않았다. 신학반의 경우, 숙식과 식비는 각자 내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교통비를 지원했다. 찬송가, 성경, 전도용 책자도 무료로 아닌 종잇값의 1/3 이상을 판매했다. (중략) 1896년 주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는 기독교학교에 대한 지원이 50%가 초과하지 않도록, 즉 50% 자립을 목표로 하였다"(p. 199)

"1912-13년의 미국 북장로교 평복 선

선 선교지부의 선교규범은 다음과 같이 엄격한 자립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1. 자립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처음부터' 자립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2. 빈곤의 문제는 자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예배당 건물은 외국 선교자금으로 건축되어서는 안 된다. 4. 현지인 전도자나 교역자의 사례비를 선교자금으로 지불해서는 안 된다. (p. 201, 이러한 110년 전의 '선교규범'이 한국교회 선교 현장에서 적용되기를 바란다.)

나가는 말(결론): '진정한 선교는 선교지에 건강한 자립교회를 세우는 것'

선교는 예배당(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참 교회(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서평자는 본 서평을 시작하면서 당연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선교는 선교지에 예배당 짓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없는 선교지에 교회를 많이 지을수록 좋지 않은가?" "예배당 건축비의 출처를 왜 따져야 하는가?" 이제 이 서평을 읽은 후에 위의 질문에 정답이 나왔는가?

진정한 선교는 건강한 자립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과제다. 중국과 한국교회에서 오랜 시간 서구 선교사들의 공통된 최고의 관심사였음을 확인하면서 본서의 저자, 변창욱 교수는 다음과 같은 '자립교회 설립을 위한 10개 방안' 제시하고 있다.

①선교사는 자립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②'처음부터' 자립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③아무리 가난해도 헌금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④건축비 지원을 받는 교회는 더 가난한 교회를 지원하게 하라. ⑤현지 교인들이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헌물 하게 하라. ⑥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 마라. ⑦현지 교인들에게 선교사가 모든 재정을 책임져줄 것

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 마라. ⑧이양을 대비해 현지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로 교회를 건축하라. ⑨선교지 교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현지 상황에 맞는 자립방안을 세우라. ⑩선교지 예배당 건물은 외국 선교자금으로 건축되어서는 안 된다. 4. 현지인 전도자나 교역자의 사례비를 선교자금으로 지불해서는 안 된다. (p. 201, 이러한 110년 전의 '선교규범'이 한국교회 선교 현장에서 적용되기를 바란다.)

사실상, 한국교회는 가장 가난한 교회, 교인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 역사에 자랑스러운 성공적인 선교지 교회가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다. 선교사는 물고기를 잡아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서평 후기 '한국교회여 이렇게 세계선교를 감당하라'

선교의 하나님은 140년 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서평자는 <한국교회와 자립선교>(배안호, 한국학술정보, 2008)를 출판하였다. 본서는 140년 전 한국교회 형성기에 대한 박사학위(Ph.D) 연구논문(스코틀랜드, 애버딘대학)이다. 한국교회는 일찍이 복음이 전래되던 초기 형성기부터 '자립선교' 원리에 의해서 건강한 교회로 설립되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네비우스 자립선교원칙'(1893년)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10년간 자립선교가 진행되고 있었다. 선교의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존로스의 자립선교 방법대로 선교하라고, 한국교회 형성 시기부터 분명히 가르치셨다. 한국교회는 부디 건강한 자립선교의 원칙과 방법대로 선교해야 할 것이다. 선교의 성상위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세계선교를 이렇게 감당하라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들려주셨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끝>

배안호 영국 선교사 (Peterahbae@gmail.com)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법정 의무 교육, 브릿지온이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갑니다!

브릿지온(Bridge On)은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밀알복지재단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예술단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가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공연과 전시를 전하겠습니다.

문의 | 밀알복지재단 밀알문화예술센터
전화 | 02-6411-3649
메일 | art@miral.org
홈페이지 | 밀알문화예술센터.kr



자세히보기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설립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생애주기별 전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11개국에서 아동보육, 보건 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은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적지위를 부여받아 종교, 국적,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활동합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전 세계 기독교계, 이란 종교자유와 평화 위해 기도

이란의 최고지도자였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전 세계 기독교계가 이란의 종교 자유 보장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는 성명을 통해 억압의 종식과 "특히 종교 자유를 포함한 새로운 자유의 계절"이 시작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러한 변화가 "이 땅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는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픈도어의 이란 담당 전문가는 "하메네이의 죽음은 이란 역사에서 중대하고도 엄숙한 순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의 지도 아래 이란 교회는 수십년간 강한 압박 속에서 제한과 감시, 체포,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견뎌야 했다"며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순간은 복수나 승리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와 존엄, 정의가 모든 이란 국민에게 신앙과 배경을 초월해 보장되는 또 다른 미래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 전환점이 평화와 화해, 진정한 자유로 이어지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박해를 피해 해외로 탈출한 한 이란 출신 기독교 개종자는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란과 중동 전체에 평화를 주시고 보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해를 피해 해외로 탈출한 한 이란 출신 기독교 개종자는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란과 중동 전체에 평화를 주시고 보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ina Drakhshani/ Unsplash.com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하메네이가 마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앞서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가 이란 고위 지도자 4명의 사망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는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하나였다"며 "그의 죽음은 이란 국민뿐 아니라 그와 그의 무리로 인해 희생된 미국인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이야말로 이란 국민이 조국을 되찾을 가장 큰 기회"라며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경찰이 애국 세력과 평화적으로 통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종교자유 단체 아이티클18은 하메네이의 이름이 "국내의 유희 사태와 해외 테러, 종교 소수자와 반체제 인사 탄압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2009년 시위 이후 기독교인 체포와 수감은 더욱 증가했으며, 정권은 가정교회를 외부 적인 산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아이티클18은 최근 세계기독교연대(CSW) 및 미들 이스트 컨선과 공동 발표한 보

고서를 통해 2025년 종교적 신념이나 활동으로 체포된 기독교인이 139명에서 254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감·추방·강제노동 처분을 받은 인원은 25명에서 57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오픈도어는 이란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고 평가했다. 중동 지역 대변인은 "전쟁을 기뻐하지 않으며, 이란과 이스라엘, 지역 전역의 평범한 사람이 겪는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서도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정의와 참된 자유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미국 북쪽주의 단체 더 가스펠 코얼리션은 "평화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며, "이란을 향한 북쪽의 문이 열리고 종교의 자유가 확장되

며 페르시아 민족 가운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길 기도하자"고 밝혔다.

가족연구위원회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필요하고 정당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금은 축하가 아니라 중보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도자들과 이란 국민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갈등 뒤에는 더 깊은 영적 현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호주 크리스천 로비(Australian Christian Lobby) 역시 성명을 통해 "이란이 새로운 지도력 아래 변혁하길 기도한다"며 "수십 년간 여성 억압과 반대 세력 탄압, 기독교인 박해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정이 완전히 해체되고 이란 국민이 안전과 자유, 번영을 누리도록 계속 기도하자"고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영 기독교인 간호사, 징계 철회 후 복직... 성별 호칭 논란 재판 앞뒤

영국 기독교인 간호사 제니퍼 멜이 고용주와의 수개월간 분쟁 끝에 직장에 복귀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제니퍼 멜은 사리주 칼살탄에 위치한 세인트 헬리어 병원에서 근무를 재개했으나, 여전히 규제기관 조사와 고용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멜과 지지자들이 따르면 그녀는 현재 간호조산사 협의회(NMCO)의 두 건의 조사와 오는 4월 예정된 고용재판을 받고 있다.

멜은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한 환자를 남성 대명사로 지칭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범죄자로 알려졌으며, 멜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월 병원 측 징계위원회는 멜에 대한 징계 사유를 철회했다고 확인했다.

기독교 법률센터(CLC)의 지원을 받고 있는 멜은 엠션 앤 세인트 헬리어 대학 병원 NHS 재단 신탁을 상대로 괴롭힘, 차별, 보복, 그리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고용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NMC는 환자 성별 호칭 문제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의혹



제니퍼 멜. ©CLC

을 이유로 멜이 공중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멜은 "직장에 복귀하게 되어 기쁘지만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두 건의 NMC 조사가 진행 중이고 4월 크로이던에서 고용 재단이 예정돼 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양심과 신앙에 따라 두려움 없이 일할 권리가 있는 모든 간호사와 의료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CLC 대표는 "이번 사건은 NHS의 성별 정체성 정책과 범의 조화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독교인 간호사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가르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센터는 모든 과정에서 멜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기독교인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쪽에 위치한 랭커스터의 웨스트사이드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의 설립자이자 담임인 세인 아이들먼 목사가 "기독교인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글을 게재했다.

아이들먼 목사는 "'영혼의 어두운 밤'(The dark night of the soul)'이라는 표현은 500년 넘게 사용되어 왔다. 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깊은 고통과 혼란의 시기를 의미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더욱 깊게 하는 데 있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이어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이 어둠에 대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조차 때때로 겪었던 것'이라고 썼다"면서 "다윗이 눈물로 베게를 적시게 만든 고통이었고, 에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게 한 고통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먼 목사에 의하면 스프로울은 "이것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믿음의 위기와 연결된 우울"이라고 덧붙였다.

스프로울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런 영적 저점을 경험할 수 있는지 묻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그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일정하지 않으며 흔들린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 사이에서 주여, 내가 믿나

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의심의 시기를 겪기도 한다"는 강력한 진리를 제시한다.

아이들먼 목사는 "이 시기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있고, bitterness(쓴 마음)와 분노, 좌절로 돌아갈 수도 있다"면서 "이는 신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한 결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심각한 질병 진단과 같은 여러 어두운 시기를 반복해서 겪는다"고 했다.

아이들먼 목사는 1990년대 후반의 매우 어두운 시기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고, 2020년에도 또 다른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말한다. 그는 2025년에 'I Almost Quit'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아이들먼 목사는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몇 주 동안 어두운 상태에 머물 수 있다. 그것은 싸움이다. 낙심은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 감사, 공포 대신 기쁨을 선택해야 하며 하나님이 최종적인 주권자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두운 시기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나 실제로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낸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을 표현한다"라며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바닥을 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바닥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아이들먼 목사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본다. 사도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체포되어 같은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두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우리 중 많은 이들도 비슷한 두려움을 경험한다. 처형을 기다리는 감옥에 있지 않더라도 의사, 친구, 경찰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을 수 있다.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거나 재정적 불안 겪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슬픔을 짊어지고 고통의 순간을 지나며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나 이것 역시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다. 세상이 무너지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염려 대신 예배, 두려움 대신 믿음, 의심 대신 신뢰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아이들먼 목사는 "염려라는 단어는 실제 혹은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기 위해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때로는 불안이 회개나 지혜로운 선택 같은 필요한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 그러나 염려가 성경적 기준을 벗어나면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반대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염려는 한 마음 안에서 동시에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아이들먼 목사는 "우리는 사람에게만 의지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공동체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말



©Nathan Dumlaio/ Unsplash.com

고 그분이 짐을 지시도록 해야 한다(베드로전서 5:7)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실망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우리를 상처 입히는 자리에서 구주에 대한 의존이 깊어진다"라고 했다.

아이들먼 목사는 "삶이 힘들고 외롭고 실망스러울 때, 바로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삶이 편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것은 쉽다"면서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예수를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도 쉽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칠 때, 그때 예배는 진짜가 된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구호인지, 아니면 삶을 붙드는 믿음인지 드러난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의성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에서 만들어갑니다.

파키스탄 14세 기독교 소년 강제개종 의혹... 불법 감금 주장

가족 고발·법적 대응 착수... 채무노동 연계 가능성 제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펀자브주 셰이크푸라 지역에서 14세 기독교 소년이 고용주에 의해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가족과 기독교 인권 단체는 해당 소년이 현재 불법 감금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을 제출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펀자브주 셰이크푸라 지구 판초 바이그 코틀라 마을에 거주하는 사리프 마시흐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약 5년 전 아들 자밀 마시흐를 지역 지주 무함마드 부타 바즈와와 가족 사육장에 보내 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사리프 마시흐는 뉴아포스톨릭교회(New Apostolic Church) 소속 신자다.

그는 "월급 대신 매년 약 200킬로그램 분량의 밀을 받기로 합의했다"며 "가난 때문에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밀은 연간 약 1만6천 파키스탄 루피 상당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방문할 수 있었고, 가끔은 하룻밤 집에 데려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폭행 후 재차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사리프 마시흐는 지난 2월 22일(이하 현지시간) 아내 나지자와 함께 아들을 만나기 위해 고용주의 집을 찾았지만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즈와가 자밀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합의하자 지역의 무슬림 원로들이 개입해 자밀을 우리에게 넘기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이 자밀을 데리고 귀가한 직후, 바즈와가 무장한 남성 두 명과 함께 집에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사리프 마시흐는 "그들이 우리 부부를 공격하고 자밀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며 "지비를 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가족은 아들을 다시 만나지



2026년 2월 파키스탄에서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된 자밀 마시흐가 이슬람 복장을 한 채 틱톡 영상에 등장한 모습.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Morning Star News

못했으며, 아들의 행방을 묻는 과정에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족은 최근 자밀이 이슬람 모자를 쓰

고 등장하는 틱톡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상 배경에는 이슬람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자밀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가족은 이를 파키스탄 기독교 소년 강제개종 사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고발법적 대응 착수... "강제 개종 처벌 연방법 부재" 지적했다

기독교 옹호 단체인 HARDS Pakistan의 지원을 받아 사리프 마시흐는 파루카바드 사다르 경찰서에 서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아들의 구출과 관련자 체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HARDS Pakistan의 최고경영자 소하일 하비는 "경찰이 사건을 정식 등록하지 않을 경우 라호르 고등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 아동의 신병 확보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시흐 가족은 극심한 부당함을 겪고 있다"며 "자밀을 불법 감금 상태에서 구출하고 책임자들이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권 활동가 나폴레온 카움은 이번 사

안이 강제 개종뿐 아니라 채무노동 관행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약한 소수 종교 아동이 개종과 동시에 가족과 분리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이는 장기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키스탄 형법상 납치, 불법 감금, 폭행, 협박 조항과 아동노동·채무노동 관련 법률을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파키스탄에는 미성년자 강제 개종을 명확히 범죄화한 연방법이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소수 종교 미성년자 개종 의혹...제도 미비와 집행 한계 지적됐다

CDI는 파키스탄에서 펀자브와 신티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 및 힌두교 미성년자의 강제 개종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인권 단체들은 미성년 소년들이 납치된 뒤 개종 및 결혼을 강요받는 사례를 기록해 왔다.

파키스탄 의회는 2021년 강제 개종을 범죄화하는 법안을 논의했으나, 종교 정당과 이슬람 이데올로기 위원회의 반대로

입법이 진전되지 못했다. 파키스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형법상 납치강제 결혼·채무노동은 금지돼 있다.

파키스탄은 1992년 채무노동제 폐지법을 제정해 빚을 담보로 한 노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으나, 농촌 지역에서는 빈곤층이 자주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어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7%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의 96% 이상이 무슬림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저소득 노동 계층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 인권 단체들은 경제적 취약성이 아동노동과 강압적 개종 등 착취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 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오픈도어스(Open Doors)가 발표한 2026년 세계 기독교 박해 감시 순위(World Watch List)에서 파키스탄은 기독교인이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가 50개국 중 8위에 올랐다. 최승연 기자

인도 차티스가르서 기독교인 매장 거부... 재개종 요구 논란

대법원 명령 이후에도 매장 갈등 지속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 차티스가르주에서 사망한 기독교 여성의 장례가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되면서, 힌두교로의 재개종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2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했다. 최근 인도 대법원이 부족 기독교인 시신의 강제 발골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직후에도 유사한 갈등이 이어지면서 인도 기독교 매장 거부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차티스가르주 칸케르 지역 아모디 마을 출신 삼바이 만다베는 지난 2월 24일 호흡기 및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 마을 주민들은 그의 시신을 공공묘지나 남편의 사유지에 매장하는 것을 막았다고 전해졌다.

진보적 기독교 연합(Progressive Christian Alliance, PCA)이 2월 26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은 "기독교 장례 의식이 마을의 토지와 신들을 더럽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장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유가족에게 힌두교로의 재개종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CDI는 삼바이 만다베의 시신은 듀르그 콘달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남편 캄페시 만다베는 칸케르 지구 행정관에게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PCA는 "인도 대법원이 최근 부족 기독교인 시신의 강제 발골을 중단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매장이 이뤄질 경우 시신을 다시 파헤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2월 18일 차티스가르 정의와 평등 협회(CAJE)가 제기한 공익소송을 심리하면서 "더 이상의 발골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티스가르 주정부에 4주 내 답변을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인도 기독교 매장 거부 사례는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고 기독교 단체들은 밝혔다.

연합기독교포럼(United Christian Forum, UCF)은 2월 19일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에만 매장과 관련된 사건이 최소 23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UCF는 이를 "부족 지역 전반에 걸친 조직적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기독교 여성의 시신이 발굴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UCF는 차티스가르, 오디샤, 자르칸드 등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바스타르 지역 베누르 마을에서는 20년 넘게 매장돼 있던 부족 기독교 남성의 유해가 발굴된 뒤 화장돼 유골이 흩어졌다고 UCF는 전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선출직 마을 지도자의 부친이 가족 토지에 매장됐으나, 일부 주민이 해당 토지가 지역 신의 소유라며 발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UCF 관계자들은 "매장 거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흐름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차티스가르 기반의 PCA 관계자인 아칼레시 에드거 목사는 인도 기독교 매장 거부 사건이 강제 재개종 운동과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장 허용을 조건으로 재개종을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단체가 기독교로 개종한 부족민의 '부족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헌법은 부족 공동체에 일정한 보호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종을 이유로 이를 박탈하려는 움직임이 매장 분쟁과 맞물려 있다는 주장이다.

UCF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700건 이상 기

록됐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당수가 달리트 기독교인과 부족 공동체를 대상으로 발생했다고 전했다.

공익소송을 대리한 변호단은 일부 지역에서 경찰이 유가족을 보호하기보다 타협을 권유하거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서는 "종교와 무관하게 거주지에서 사망자를 매장할 권리는 헌법상 평등권과 존엄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테흐미나 아로라는 기자회견에서 "가족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이곳은 당신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청원서는 모든 주민이 종교와 무관하게 거주 마을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 그람 판차야트(마을 의회)가 종교 중립적 공동묘지를 지정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차티스가르 주정부는 대법원 통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사건은 2월 18일 이후 4주 내 재심리가 예정돼 있다.

국제 기독교 지원 단체 오픈도어스(Open Doors)가 발표한 2026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인도는 12위를 기록했다. 2013년 31위에서 상승한 수치다.

최승연 기자

오픈도어 "예멘 사역자 마제드 체포, 국제 교회에 긴급 기도 요청"

예멘에서 활동해 온 기독교 사역자 마제드(Majed)가 최근 체포돼 심문과 구금 위기에 놓였다고 국제 기독교 박해감시 단체 오픈도어(Open Doors)가 2일 밝혔다. 오픈도어(Open Doors)는 예멘 현지 상황을 전하며, 마제드와 함께 체포된 신자들을 위한 긴급 기도를 요청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마제드는 체포 가능성을 예상하며 최근까지 성경 구절을 암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불잡히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며 스스로를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되기를 소망해 왔다. 마지막 연락에서 그는 "우리가 불잡히더라도 사역이 계속되길 기도해 달라. 여동 가운데 있는 예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할 다른 이들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마제드는 안전을 위해 해외로 피신할 기회도 있었으나, 고향과 사명을 떠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모두가 떠나면 누가 남겠느냐"며 예멘에 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로 체포된 기독교인은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의 작은 지하교회 공동체에 있어 이는 상당한 규모의 타격이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6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World Watch List)에서 예멘은 3위를 기록했다. 배교는 법적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북부 지역을 장악한 후티 반군은 개종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현재 수감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여전히 실종 상태인 신자들을 위해 국제 교회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마제드의 신앙과 담대함을 위한 보호 ▲구금 중인 신자들의 석방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은혜 ▲예멘 교회의 회복과 소망 ▲예멘 사회가 복음에 마음을 열도록 하는 변화 등을 주요 기도 제목으로 제시했다.

마제드는 생전 "예멘에는 빛이 필요하다. 우리의 고난이 이 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형구 기자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 광역접근성 우수
-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굿피플, 마다가스카르 사이클론 '게자니' 피해 지역 긴급구호 진행

사이클론 게자니로 42만 명 피해, 토아마시나 집중 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이용기)이 사이클론 '게자니(GEZANI)'로 큰 피해를 입은 마다가스카르 항구 도시 토아마시나(Toamasina) 지역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굿피플 마다가스카르 긴급구호는 기후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월 10일 최대 풍속 약 175km/h에 달하는 강력한 사이클론 게자니가 마다가스카르 동부 해안에 상륙했다. 특히 토아마시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과 기반시설이 크게 파손되며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월 18일 기준, 사망자는 5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재민은 1만6,428명에 달했다. 전체 피해 인원은 42만3,986명으로 파악됐다. 주택 2만5,044채가 완전히 파괴됐고, 7만6,885채가 부분 파손 또는 침수 피해를 입었다. 마다가스카르 기상청은 주요 강 유역에 홍수 위험 적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토아마시나 1,330가구에 식료품·생활용품 지원...약 3만9천 달러 투입

굿피플은 피해가 집중된 토아마시나를 긴급구호 활동 지역으로 선정하고,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취약계층 1,330가구, 약 5,000명을 대상으로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지원 품목에는 쌀, 콩, 소금 등 식료품과 양동이 등 기본 생활용품이 포함됐다.

이번 굿피플 마다가스카르 긴급구호 사업에는 총 3만9,817달러, 한화 약 5천8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현지 상황을 고려해 즉각적인 생계 지원이 가능한 물품 위주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굿피플은 사이클론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마다가스카르의 항구 도시 토아마시나(Toamasina) 지역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굿피플

특히 굿피플이 운영 중인 해외아동 후원사업(Child Sponsorship Program, CSP)과 연계된 학교 시설이 붕괴되고, 후원아동 가정의 가족이 파손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굿피플은 후원아동 301명을 포함한 피해 가정들 우선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실시했다.

◆후원아동 301명 포함 피해 가정 지원...학습 환경 복구 검토

굿피플은 사이클론 게자니로 피해를 입은 후원아동 가정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동시에 학교 시설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학습 환경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는 주택 붕괴와 침수로 인해

아동의 교육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와 교량 파손으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학교 재개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용기 굿피플 회장은 "기후재난으로 마다가스카르 주민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굿피플은 후원아동을 비롯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와 함께 중앙 기금인 복구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굿피플은 이번 마다가스카르 긴급구호를 시작으로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교육 환경 복구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승연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4기 출범... 기후위기 아동권리 대응

기후위기 속 아동 참여 활동 본격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아동의 생존권과 교육권 등 기본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수와 가뭄, 감염병 확산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삶에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청소년 참여형 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4기 운영진을 출범시키며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얼마 전 본부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4기 운영진 20명을 위촉했다. 위촉식에서는 기후위기와 아동권리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ESG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 지표 개발 및 확산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수십 년만의 홍수로 수인성 질병이 급증하고 있다. 13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과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위기가 단순한 자연재해를



세이브더칠드런 본부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4기 운영진 위촉식이 진행됐다. ©세이브더칠드런

넘어 아동 권리를 직접적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아프리카 홍수 피해 확산...잠비아 모잠비크 등 아동 학습권 위기

잠비아에서는 4천 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900헥타르가 넘는 농작물이 유실돼 가계 소득이 위협받고 있다. 식수와 위생시설 파괴로 콜레라가 발생했으며, 감염 사례의 26%가 15세 미만 아동으로 파악됐다.

모잠비크에서는 84만 명이 넘는 홍수로 피해를 입었고, 579개 학교가 침수돼 30만 명 이상의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

지 못하고 있다. 짐바브웨에서는 말라리아와 실사 환자가 증가하는 등 보건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약 4천 채의 주택이 침수됐고, 385개 이상의 도로와 교량이 유실돼 응급 구조 활동에 제약이 발생했다. 특히 의료 시설 피해가 이어지면서 의료 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다.

이 같은 상황은 기후위기가 환경 문제를 넘어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인권 문제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글로벌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과 사회에 반영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구를 위해 모였다...아동·청소년 참여형 모임 운영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은 '지구를 위해 모였다(Earth+Assemble)'는 의미를 담은 아동·청소년 참여형 모임이다. 2023년 지구의 날에 공식 출범한 이후 매달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현안을 논의하며 정책 제안과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어셈블은 기후위기가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동 중심의 기후대응 활동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아동권리 관점으로 재정의하는 지표 개발에도 참여해 왔다.

이번 4기 운영진 위촉식에서는 ESG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 지표의 개발 방향과 확산 전략이 공유됐다. 세이브더칠드

런은 이를 통해 기업과 기관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 정책에 아동 목소리 반영돼야"...정책 참여 확대 강조

새롭게 위촉된 운영진 가운데 한 참여자는 "기후 정책에는 미래를 살아갈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활동을 통해 또래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지구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사업팀 유혜

영 팀장은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이 기후정책의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4기 운영진 출범은 기후위기를 아동권리 문제로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이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승연 기자

초록우산, 국회서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안내 제도화' 촉구

주민등록 기반 취학 통지 사각지대 지적...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법안으로 전국 단위 입학안내 체계 마련 추진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국회에서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안내 제도화를 공식 촉구했다. 초록우산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취학 통지 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의 현실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초록우산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아동이 주민등록 기반 취학 통지 체계에서 배제되며 겪는 입학 지연과 정보 부족 문제를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주민등록 기반 취학 통지 한계... 외국인 아동 입학 사각지대 발생

현행 초등학교 취학 통지 체계는 주민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입학 절차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초록우산은 그동안 이주배경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발달 지원과 안정적 적응, 정착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현장 활동 과정에서 외국인 아동이 취학입학 통지를 받지 못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초록우산은 지난해 10월 국회 간담회를 통해 이주배경아동과 보호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의

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안내 제도화를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법안... 지자체장에 입학 안내 의무 부여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외국인 아동의 현황을 조사·관리하고,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 안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록우산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다국어 입학 안내를 전국 단위로 제도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를 보완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국적 통합 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용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초·중고 학습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주배경학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배경학생이 2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공교육 진입 안내는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행정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내 부재로 입학이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증언과 국회 촉구... '입학 초대장' 받을 권리 강조

이날 기자회견에는 입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취학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김용태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외국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안내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초록우산

통지 체계에서 소외된 현실과 언어 적응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부담을 토로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교육은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외국인 아동에게는 개인이 요청하고 증명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동이 국가가 보내는 입학 초대장을 받고 신학기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초록우산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 기여한 김용태 의원을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로 인증하고 현판과 배지를 전달하는 순서도 진행됐다. 초록우산은 2024년부터 아동권리 존중과 제도 개선에 힘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해당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단체는 앞으로도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안내 제도화를 포함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 ONE OF NOT MANY. GENÈVE

이란 정권의 균열: 이슬람주의 시대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헤디에 미라흐마디(사진)의 기고글인 '이란 전쟁: 이것이 이슬람주의의 종말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Iran war: Could it be the beginning of the end of Islamism?)를 3일(현지시간) 게재했다.

헤디에 미라흐마디는 20년 동안 독실한 무슬림으로서 국가 안보 분야에서 일해 왔으나,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는 현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인터넷의 힘을 활용하는 온라인 사역 단체인 Resurrect Ministry에 전임으로 헌신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혁명 정권이 내부 붕괴나 경제 제재가 아닌, 오랫동안 "큰 사탄"과 "작은 사탄"이라 불리는 국가들과의 직접적 충돌로 인해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

중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의 제거를 넘어선다. 이는 어쩌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곧 전 세계 이슬람주의 체제의 구조에 처음으로 가시적인 균열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수십 년 동안 이슬람주의는 흔들림 없는 확신 속에서 확장되어 왔다. 1979년 정부를 무너뜨렸고, 혁명을 촉발했으며, 국제 기구에 영향력을 심었다. 서구 담론 속에도 활동가적 언어와 정체성 정치의 형태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자신을 '불가피한 역사적 흐름'으로 제시했고, 신적 예정에 따른 승리를 약속했다. 역사는 결국 이슬람적 우위로 기울 것이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 서사는 공개적으로도 전방고 있다. 이슬람주의는 종교를 정치 권력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가를 장악하고, 종교법을 강제하며,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정치 이념이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그 대표적 모델이었다. 열두 이맘 시아파 신학, 특히 '마흐디즘(Mahdism)

은 은둔한 이맘이 세계적 혼란과 충돌 이후 돌아와 이슬람 통치를 세운다는 교리에 기초한 신적 체제였다.

수년간 이 정권의 수사는 신학과 지정학을 결합해 왔다. 미국은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라 "큰 사탄"이었다. 이스라엘은 단지 인접 국가가 아니라 신학적 장애물이었다. 저항은 전략이 아니라 성스러운 의무였다.

그러나 이제 신적 필연성을 주장하던 정권이 예기치 못한 현실에 직면했다. 그것은 맞설 수 있고, 억제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 패배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다.

이 순간은 전략적 의미만큼이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슬람주의는 '멈출 수 없는 추진력'이라는 인식 위에서 번성해 왔다. 그 인식에 균열이 생기면, 이념적 장악력이 약화된다. 불가피성의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전 세계 수백만 이란인들은 활발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포함해 오랫동안 성직자 통치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해 왔다. 이란 내부에서도 많은 이들이 종교적 획

일화를 강요하는 정권에 조용히 저항해 왔다. 여성들은 히잡을 벗고 시위했고, 젊은 세대는 국가 선전을 거부했으며, 지하 교회는 성장했다. 정권의 권위는 강력했지만 결코 무적이 아니었다.

이제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다. 통치 성직 체제가 최고 수준에서 타격을 입은 것이다. 세계는 이슬람주의 통치가 책임과 결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불안정을 종식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복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사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 순간은 조롱이 아니라 절제된 소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말하며, 억압적 체제는 결국 자신의 오만함 아래에서 무너진다고 가르친다. 역사적으로 절대 권력과 신적 정당화를 결합한 제국들은 결국 균열을 겪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단순한 군

사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재조정이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다. 오랫동안 서구 지도자들은 이슬람주의 이념을 옹호하거나, 혹은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한 마비 상태는 그 영향력이 일부 영역에서 통제 없이 확장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결정적 충돌은 심리적 지형을 바꾼다.

이 순간이 자유로 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갈등의 또 다른 장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을 분명한 인식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맞이해야 한다. 우리는 이슬람주의를 정치 체제로서 거부한다. 그것은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며, 복음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란 국민을 위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국제 사회가 절제된 대응을 하도록 기도한다. 파괴가 아니라 구원을, 자배가 아니라 정의의 위해 기도한다.

만약 이것이 이슬람주의 정치 권력의 약화로 이어지는 더 큰 전환의 시작이라

면, 그것은 단지 한 지도자가 쓰러졌기 때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불가피성'이라는 환상이 깨졌기 때문이다.

불가피성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자유를 상상하기 시작한다. 역사는 이전에도 방향을 바꿨다. 폭정은 무너진 적이 있다. 움직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이념 체제도 진리와 용기의 무게 아래 해체되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순간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정은 복수가 아니다. 경계와 지혜, 그리고 도덕적 명료성이다. 인간성을 잃지 않으면서 자유를 지키는 일이다. 확고히 서되 자비를 포기하지 않는 일이다.

정치적 이슬람에 기반한 정권의 몰락이 하루아침에 모든 갈등을 끝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자유 국가들이 신적 운명이라는 서사에 굴복하지 않고 이슬람주의를 결정적으로 밀어낸 순간으로 기록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세계는 이 변화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최승연 기자

하나님께 자신의 영적 통찰을 맡기기 위한 10가지 성경적 조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조셉 마테라 목사(사진)의 기고글인 '2026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10가지 방법'(10 ways to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in 2026)을 1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마테라 목사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컨설턴트, 신학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사도 지도자 연합(The U.S. Coalition of Apostolic Leaders), 그리스도 언약 연합(Christ Covenant Coalition) 등 여러 단체를 이끌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변화산 사건 이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진리를 드러낸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계시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순간에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통찰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청지기직임을 알 수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사도 바

울은 자신이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려 할 때, 하늘에서 "그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렸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하며 단단한 음식(영적 깊이)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탄식했다.

이 구절들은 분명히 말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 성숙과 신뢰를 증명한 자들에게 맡겨진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찰을 맡기기 위한 성경적 전제 조건 10가지이다.

1.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 친밀함을 개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빛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관계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은 자신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에게 비밀을 드러내신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고, 다윗은 들판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으며, 예수께서도 자주 한적

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친밀함 없는 통찰은 교만을 낳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겸손으로 감싸인 통찰을 낳는다.

2.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통찰은 가볍게 찾는 자가 아니라, 갈급한 자에게 주어진다. 영적 굶주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영적 빛으로 채우신다. 피상적인 신앙에 만족하는 자는 표면적 진리만 듣게 된다.

3. 신뢰할 만한 성숙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영적 성숙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느냐로 측정된다. 하나님은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자아 중심적인 사람에게 깊은 계시를 맡기지 않으신다. 주님은 종종 무명, 오해, 교정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그 시간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더 큰 통찰을 맡기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4.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통찰을 남기지 않으신다. 참된 통찰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담겨 있다. 아모스 3장 7절은 말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에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삶이 하나님의 사명과 일치될 때, 그 사명을 이루도록 통찰을 주신다. 책임 없이 지식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다.

5. 섬기는 공동체의 영적 용량을 알아야 한다
지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 아는 것뿐 아니라,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마 7:6)고 하셨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았다.

지도자는 청중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한다. 시기상조의 계시는 혼란과 상처를 남길 수 있다.

6.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시편 25편 14절은 말한다. "여호와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하나님은 경솔하고 무례한 자에게 자신의 신비를 맡기지 않으신다. 말씀 앞에서 떨 줄 아는 자에게 맡기신다.

7.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고(사 41:8), 모세와는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출 33:11). 친구는 명령을 따르는 종과 달리 마음을 이해한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요 15:15)고 하셨다.

하나님의 친구는 말씀을 존중하며 신실하게 다룰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더 깊은 것을 맡기신다.

8. 계시를 구하는 동기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깊어 보이기 위해,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계시를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기를 드러내신다. 참된 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골 3:10).

오늘날 많은 이들이 새로운 계시를 즉각 공개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 안에서 그 말씀이 육화되기를 기다린다.

9. 계시를 나눌 적절한 때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해서 즉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성숙한 하나님의 종은 무엇을

말할지뿐 아니라 언제 말해야 할지도 분별한다.

10. 성경과 역사적 정통 신앙에 부합하는 지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계시를 주지 않으신다. 성경과 초대 교회의 공의회, 그리고 역사적 정통 신앙과 어긋나는 "새 계시"는 경계해야 한다. 성경은 새롭음을 만들어내는 영이 아니라 진리를 밝히시는 영이다. 참된 통찰은 이미 놓인 기초를 대체하지 않고 더 깊이 이해하게 한다.

11. 결론
하나님의 통찰은 장난감이 아니라 보물이다. 그것은 거룩한 두려움과 겸손, 순결로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계시는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한 것이다. 친밀함과 성숙, 경외와 우정, 하나님의 목적과의 정렬을 기르며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맡기실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롬 8:29-30)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신의 신비를 맡기실 때, 그것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할기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들
• 기업구조조정펀드 • 경표 신박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창조주를 기억하라

본문: 로마서 1:16
설교: 고(故) 김중환 목사

삼일절을 앞두고 한영숙 목사가 고(故) 김중환 목사의 생전 설교를 전해왔다. 한영숙 목사는 현재 바울세계선교회를 이끌며 고 김중환 목사가 남긴 설교와 기도문, 문학 작품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삼일절 설교에서 김 목사는 삼일절 정신을 단순한 저항의 역사로 보지 않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창조주를 기억하는 믿음” 위에 선 역사적 책임의식으로 해석했다. 그는 젊은 이들이 진리 앞에 자신을 던졌던 그 기백이 곧 십자가 정신이라며, 민족의 역사 역시 성경적 진리 위에 설 때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다고 권면했다.

고 해봉 김중환 목사는 한영숙 목사의 남편이자 평생 사역 동역자로, 1980년 도미 후 KPCA 뉴욕노회에서 안수받고 1982년 고려교회(현 메트로폴리탄연합감리교회)를 공동 창립했으며, 바울세계선교회를 설립하고 『신앙과 교회』를 발행하며 이민교회 신학의 지평을 넓힌 목회자다. 해당 설교는 2002년 3월3일 당시 고려교회 삼일절예배에서 전했다. 다음은 설교문 전문.

삼일절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옵니다. 삼일절의 정신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삼일절 정신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삼일절 정신을 집권 세력에 대한 저항 정신으로 이해한다면 삼일절 정신이 대한민국의 근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저항을 부추기는 국가는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려 교회는 창립 때부터 삼일절 기념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민족사에서 보는 신앙인의 사명을 선포했고, 세계문화를 향한 겨레의 위대성을 말씀으로 증거 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인들의 역사 속에서 최고 정상의 엘리트였던 전도서 저자의 시간관과 역사관을 복음으로 읽는 지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전도서의 말씀은, 시간은 사정 없이 병축하게 흐르고 있으니 너의 수축이 움직일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는 사람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실 때에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그 좋은 예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할 때에는 갈비뼈에 손을 대고 다짐하는 말을 했습니다.



고 김중환 목사가 고려교회 협동목사로 사역하던 당시 사진 ©한영숙 목사

흔히들 역사를 논할 때면 제왕이나 위대한 인물들의 업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류역사의 실상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역사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로부터 클레오파트라에 이르기까지 4천년의 시간을 장식했던 나일 강의 역사는 미라와 피라미드로 대변되는 화려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제왕들과 당대의 부자들을 위한 궁전과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나 피라미드를 건축하기 위하여 동원된 수많은 이름 없는 노예와 백성들이 나일 강의 물줄기를 따라 거대한 돌들을 운반하고 다듬고 세우는데 피땀을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피라미드에는 남편과 자식을 강제 노역에 내어보내는 여인들이 부르짖는 통곡의 눈물이 스며있습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죽음 이후에 태양신의 도움으로 언젠가 부활하게 될 날을 대비해서 미라가 되어 준비할 수 있었지만 수많은 이름 없는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리며 사막의 모래 바람 속에서 통곡의 눈물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다스강 3천년의 문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죽음을 넘어선 해탈의 세계, 즉 브라만의 세계를 꿈꾸며, 어떤 것도 영원한 세계에 가져갈 수 없고 장애가 된다는 종교의 가르침 아래 시신을 철저히 화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죽은 삶과 장례는 제왕이나 집권층, 부자들 같은 한정된 계급에게만 허용된 것이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장작을 살 돈이 없어 제대로 화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모르게 시신을 떠나보내며 비통한 슬픔을 숨겨야 했던 서민들의 한을 빼면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다스강의 문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황실에서 미용제로 썼던 살구나무 꽃도, 메뚜기로 갈증을 위해 강장제로 사용했던 딸기도, 나이 앞에서는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 가면 모래바람 속의 나일 강과 같이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든 세상, 슬픈 세상을 다시는 볼 수 없

는 곳을 향해 시간을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런대로 무난하게 산다.”고 마음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도 시간은 우리들을 냉정하게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라는 불교의 가르침이나, “수의에는 주머니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뜻하는 바처럼 세상 모든 것의 결론은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한강의 역사 역시 눈물과 통곡으로 채워진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가백을 이루는 삼일절의 정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행동으로 보여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유의 정신입니다. 당시 젊은이들의 기백은 자신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나, 권력이나 부를 치부하고 살아남는 것과는 관계가 없이, 믿음으로 자신을 진리 앞에 던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 되어 세상의 슬픔과 한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진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의 한계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믿음이 없으면 사랑 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사랑은 관계성에서

최선의 신뢰이고, 사랑에는 역사 속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슬픔도 허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가르침은 때를 놓치지 말고 진리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던지는 젊은이의 기백으로 역사 앞에 책임을 지고 사랑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것이 삼일절의 정신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고달픈 이민의 삶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삼일절의 맥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오늘의 당면한 역사를 책임지라는 명령이며 축복입니다. 흔히들 “삼일절 민족정신으로 남북통일 이루자”는 말을 하지만 진리를 향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처절하고 허무한 것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을 체험하게 되고 세상의 허무한 시간과 압제의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국인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종시 힘이 되는 성구(1부)-1



김정부 목사
찬송하는교회 담임
한국교회법학회 이사

인간이 생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을 때, 기도는 떠나는 이에게는 평안을, 남은 이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는 길고 복잡한 기도보다, 아래 성구들을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임종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능력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고 하니, 사랑과 평안이 담긴 언어로 영혼을 배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종을 앞둔 분에게 이 성구들을 들려주실 때는 천천히, 그리고 평온한 어조로 읽어주세요. 때로는 손을 부드럽게 잡아드리며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십니다”라는 짧은 고백을 덧붙이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서 임종시 가장 많이 낭독되고 힘이 되는 성구와 기도문 12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1. 전적인 신뢰의 기도 (시편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의마: 죽음의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 2.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 (누가복음 23: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마지막 호흡 하시니라.”
• 의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따라, 나의 전 존재를 창조주의 자비로운 손길에 맡기는 고백입니다.
- 3. 낙원의 약속 (누가복음 23: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 의마: 육신의 고통이 끝나는 즉시 주님과 함께 평화로운 곳에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줍니다.

- 4. 부활의 확신 (요한복음 11:25-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의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구절입니다.
- 5. 평안을 비는 기도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 의마: 죽음 앞의 공포를 물리치고 하

늘의 초월적인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 6. 분향을 향한 소망 (요한복음 14:1-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 의마: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며, 이제 진정한 안식처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감을 삼가시킵니다.
- 7. 영원한 안식의 약속 (계시록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 의마: 질병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위로를 전합니다.
- 8. 승리의 고백 (디모데후서 4:7-8)**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 의마: 치열했던 삶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승전가와 같습니다.

- 9. 변치 않는 사랑 (로마서 8:38-39)**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의마: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안전감을 줍니다.
- 10. 하나님의 보호 (시편 121: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 의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출입)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 11. 안식의 기도 (시편 4:8)**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 의마: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며, 하나

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잠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 12. 빛으로의 인도 (시편 31:5)**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 의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위타의 기도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는 길고 복잡한 기도보다, 위 성구들을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임종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능력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고 하니, 사랑과 평안이 담긴 언어로 영혼을 배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 문턱에서 영혼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는 성구와 기도문 12가지를 더해 드립니다. 앞서 드린 말씀들이 주로 ‘확신과 안식’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두려움을 이기는 동행’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계속)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30정

발열

인후통

몸살

근육통

광고심의필 : 2022 - 1618 - 003300

상품 및 구입문의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베포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염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 - 082 - 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자녀교육 시리즈(19)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 아브라함



이훈규 장로
G2G선교회 대표

성경 속의 자녀교육: 성경 속 부모들이 보여준 자녀교육의 길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개인 신앙의 깊이에만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자녀와 가정을 향해 신앙을 계승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관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 하였나니"(창세기 18:19)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필자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명하며 살아왔는가?" 성취를 요구했는지, 경쟁에서 이기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먼저 보여 주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사람인가를 보셨다. 아브라함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아들을 주어 만국 백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크게 복을 주어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져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하신다.

그러나 그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구십구 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고, 기다림 가운데 실수도 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는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고 말았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필자는 부모로서 조급해졌던 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하나님의 때보다 내 기대가 앞섰던 순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이삭을 하락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세운 아버지가 되었다. 이 사실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부모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 그리고 늦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다시 붙들게 한다.

1. 아브라함의 신앙은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75세였다.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항상 가족이 함께 있었다. 그의 신앙은 개인적 결단에서 멈추지 않고, 가정 전체의 방향이 되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며 나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을 떠올리게 된다. 신앙은 개인의 열심으로는 유지할 수 있지만, 계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브라함은 말로 설교한 아버지가 아니라, 삶으로 방향을 보여준 아버지였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어라"라고 말하기 전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먼저 보여 주었다. 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태도,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자녀의 눈과 마음에 새겨졌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삶은 이삭에게 가장 분명한 신앙 교과서였다.

필자 역시 세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늘 마음에 새겨 온 기준이 있다.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보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었다. 필자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는 것이 아버지로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고 여겨 왔다.

그래서 주일이면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상을 삶의 최우선에 두었다. 때로는 바쁘고 피곤한 날도 있었지만, 예배를 선택하는 그 작은 반복이 결국 가정의 방향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지금 세 자녀 모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2. 모리아산에서 드려진 자녀교육의 정점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은 자녀교육을 논할 때 결코 피할 수 없는 장면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라라고 명하신다. 이 사건을 단순히 '믿음의 시험'으로만 이해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담긴 깊은 신앙의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장작을 지고 함께 산을 오를 만큼 성장한 아들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묻는다. "불과 나무는 있으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은 긴 설명을 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필자는 부모로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위기의 순간마다 나는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내 계산과 불안을 먼저 드러내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평생 살아온 신앙의 결론이었다. 이삭은 그 순간,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 아니라 삶으로 배웠다. 아버지가 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에, 이삭은 그 믿음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며 필자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 "나도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런 아버지, 이런 할아버지로 남고 싶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고백이 마음 깊이에서 올라온다.

3. '결과'보다 '계승'을 귀하게 여긴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녀교육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이삭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삭 역시 연약했고 실수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삭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브라함 → 이삭 →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자신의 꿈의 연장선으로 키우지 않았다. 그는 자녀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존재로 바라보았다. 이

시각의 차이가 자녀교육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묻는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필자는 부모로서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게 된다. 아브라함의 자녀교육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 자녀교육은 기술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으로 바라볼 때, 접촉은 통제가 되고 신뢰는 믿음의 교육이 된다.

결국 자녀의 신앙관을 만드는 것은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부모의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결과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싶다.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임을 믿기 때문이다.

【핵심 포인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 아브라함

- * 자녀교육은 부모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서 시작된다.
- *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다음 세대다.
- * 위기의 순간에 부모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이 자녀의 신앙을 형성한다.
- * 신앙 교육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다.
- *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값진 유산이다.

신앙의 범용성



권중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범용성'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두루 활용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특정 목적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도 유연하게 적용되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를 넘어 카메라이자 지도이며, 메모장이자 금융 도구가 됩니다. 예전에 뿔이끼 칼이라고 불리는 Swiss Army Knife가 있었는데, 지금 40대 이상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칼은 다용도 칼로써, 범용성을 한 예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가족여행 중에 늘 지참하던 칼이었는데, 여러 용도로 쓰여, 편리함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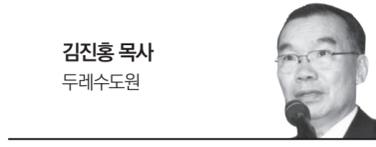
이러한 범용성은 AI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어떤 전문 분야만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알고, 또 그 다양한 지식을 통합하여, 전체를 이해하여, 영향력을 확장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단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AI 인공지능이 사람의 전문성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필요하지만, 이제 사람에게서는 AI를 활용하고 지시하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최근 AI시대에 펼쳐질 미래를 걱정하는 나를 통찰력 있는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기초상식, 기초과학, 자연과학, 철학, 수학과 같은 사람과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녀를 범용적 인간, 즉 AI에 지배당하거나 일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AI를 부리고 사용하는 자로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

은 특정 시간이나 공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의 예배 고백이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질 때, 믿음은 비로소 온전한 힘을 발휘합니다. 가정에서의 태도, 직장에서의 선택, 인간관계 속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신앙은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잘 세워진 믿음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고, 성장 앞에서는 교만을 경계하게 하며, 갈등 속에서는 화해의 길을 찾게 합니다. 신앙은 삶의 한 부분을 장식하는 요소가 아니라, 삶 전체를 비추는 빛입니다.

어쩌면 가장 범용적인 것은 기술이나 지식이나 믿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서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특정한 순간을 위한 힘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하루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은 거룩한 쓰임이 됩니다. 신앙의 범용성을 믿고, 신앙생활에 진지함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의 복음장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복음장이라 일컫습니다. 53장은 12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복음의 핵심을 일러 주는 금쪽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3장 1절은 다음 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활약하셨던 선지자 이사야는 700여 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일러 줍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하듯이 당시의 사람들도 이사야 선지가 일러 주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확실하게 보여 줍니다. 2절과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채와 모습에 대하여 실감나게 일러 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이사야 53장 2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사이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에 대하여 소상히 일러 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리고 5절에서 다음 같이 일러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로마 병정들의 창에 찔린 것이 우리들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였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복음의 역키스를 일러 줍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이경애 원장
목회심리상담전문가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17세기 철학자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명언이다. 신앙과 인간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한 파스칼은 절망 속에서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명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일 세상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여 절망하고 무책임한 오늘을 보내는 것 대신, 오늘 내가 해야 할 나의 일을 묵묵히 성실히 감당하겠다는 참으로 엄숙한 자신을 향한 준엄한 명령이 아닐 수 없다. 아마 평범한 사람이라면 허둥대며 두려워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우왕좌왕하느라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한다. 만약 파스칼처럼 지구의 종말 앞에서도 담담히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늘 그 자세로 살아온 내공 있는 사람일 것이다.

상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내담자가 ‘지금-여기’에 존재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의 심

리적인 어려움은 대부분 과거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 분노, 아쉬움과 후회의 감정에 매몰되어 자책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몰두하던지, 아니면 반대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가장 확실하고 중요하고 명확한 것이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현실을 망각한 채 과거나 미래에 매어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데도 말이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오늘, 내가, 여기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의미를 만들고 찾는 것을 중요시하며, 게슈탈트(Gestalt) 심리학에서도 지금, 내가, 내 몸으로, 감정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의 생생함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아개념 검사의 하위 요인인 시간성 요인에서도 한 개인이 어떻게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분열이 아닌 연결점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가를 중시한다. 이 모든 것의 지향은 결국 떠나간 시간 속의 화환이 아닌 그 안에서 의미와 반성할 것, 감사와 축하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 그 힘으로 미래의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한 현재 노력과 의미를 부여하는 신성한 수고를 중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복음사에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가(시간)에 대해 몰두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

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공간과 시간적 개념, 3차원적인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적 존재에 매인 제자들에게 천국은 개인이 그 천국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고 기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누가복음 17장 20-21절). 결국 오늘을 충실히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와 화해하는 것도, 미래의 비전도 모호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날마다 이곳, 저곳에서의 어지러운 소식들을 접하며 쉽게 불안해하는 요즘이다. 나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었다, 혹은 저것이 문제라는 식의 원인을 찾고 타인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죄로 인한 자기 비하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통제권이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뿐이다.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의 준엄한 명령을 들을 데 집중하도록 하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생생함으로 내일 세상의 종말보다 더 중요한 오늘 나의 사과나무 심기에 힘을 기울이는 거룩하고 숭고한 노력을 기울여보자.

거듭난 자의 하루하루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생명의 날들이다. 이 묵묵하고 성실한 삶을 향한 노력,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의 삶을 마주한 태도이다.

회개하십시오



김성수 목사
시애틀 지구교회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베드로의 짧은 설교 한 편이 3천 명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찔렀고, 그 찔림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말씀 경청은 시작입니다. 찔림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그 말씀의 효과는 예루살렘 골목,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한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변화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마찬가지로입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들읍시다. 찔림을 받읍시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부터는 현실입니다. 어떤 이는 자녀 성적 앞에서 무너지고, 어떤 이는 이민 생활의 불안 앞에 걱정에서 사로 잡힙니다. 또한 인간 관계의 갈등으로 기도보다 자존심이 먼저 나옵니다. 이러한 삶의 패턴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 제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베드로는 찔린 군중에게 단 한 마디를 건넸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것은 실제로 방향을 바꾸라는 도전입니다. 그 결단 앞에는, 두 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과거 삶에 대한 용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739-8119
광고문의 010-2700-3297
대표주좌
동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社說

잠자는 北 인권법, 보편적 인권 실종사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집행을 담당할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마냥 지연되고 있어 법의 사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 시각지대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사문화는 보편적 인권 외면이자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명시한 헌법에 대한 도전이란 점에서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사명이다.

지난 3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의 힘 김기현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북한 인권 관련 제도 운영 공백을 지적하며 북한인권법의 정상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북한인권법’을 부정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했다.

정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답변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 할 필요를 느끼지 않

는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10년 전 영야 합의로 국회가 제정한 법에 도전하는 듯한 주무장관의 판단 자체로도 문제가 된다. 그가 이런 판단을 기준으로 이사 추천을 거부했다면 주무장관으로서 자책이 없다.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도 국가인권위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이행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국회에 한 차례도 보내지 않았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통일부가 북한인권대사 이사 추천 공문을 국회에 송부한 건수는 총 14회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인 2024년 11월 18일이 마지막이다.

통일부 측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

연의 책임을 지만해 비상개입 이후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돌리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대북 유화책에 몰두한 정부가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데 있다. 지난해 7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인권재단’의 명칭을 ‘남북협력재단’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북한 인권’이란 단어를 아예 지우려고 작심했다는 뜻이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관련해 최근 재단 이사 추천 미이행 소송이 2심에서 승소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 판결이 나오는 대로 간접강제 등 추가적 압박을 검토할 방침이라 하지만 법보다 개인 판단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국가 통치정책을 주무르는 현실에서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순 없다. 법적 수단과 함께 적극적인 대국민 여론 환기로 보편적 인권 실종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美 핵 무력 단호함, 북한도 예외 아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28일 단행한 대이란 공습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는 중동에서 미국의 힘의 질서를 재확인시켜준 사건이다. 미국은 이번 작전으로 40여 년간 이란 권력의 정점에 군림해온 하메네이와 그 추종 핵심 세력을 표적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망한 하메네이는 ‘라흐바르(Rahbar-최고 지도자)’란 이름으로 사실상 대통령 위에 군림하며 모든 권력을 휘둘러 온 상징적 인물이다. 하마스헤즈 세력의 배후 조정자인 인물은 미국이 단숨에 제거했다는 건 중동에서의 권력 균형 재편의 불가피성을 의미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이란 공습에 나선 표면인 이유는 ‘핵 개발 저지와 핵농축 프로그램 제거’라는 이른바 핵 비확산 논리에 있다. 이는 이

라뿐 아니라 북한 등 핵 개발에 몰두하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논리다.

이란과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주권수호 행위’로 정당화한 공통점이 있다. 미국이 힘으로 이란을 제압한 후 모든 시선이 북한을 향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화를 원하고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가 전제라는 점에서 이란과 다르게 취급하기 어려운 거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25일 끝난 제9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을 ‘국가 생존의 명선’으로 재규정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적 인정 확보를 전략 목표로 세웠다.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 ‘영원한 적대국’ 규정을 통해 구조적 단절을 선언하고 미국과는 조건부 대화 여지를 남기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이 ‘저항의 축’을 이끄는 중동의 상징적 지도자를 제거한 것이 북한의 상징에는 엄청난 충격일 것이다. 다만 이란 사태를 계기로 더욱 핵 무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핵을 체제 보장의 절대 수단으로 여길 테니 말이다.

최근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또는 대폭 축소하는 문제로 미국과 잦은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동맹인 미국과의 크고 작은 트러블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계산된 전략에 대놓고 협력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안보에 배후무의한 대북 유화책으로 북한의 핵 무력 증강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한미동맹 강화로 미국과 함께 북한의 북한 핵 무력 포기를 압박할지 말이다. 핵 무력에 단호함을 보여준 미국의 대이란 공습에 그 해답이 있다.

튼튼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드라마 '더 초즌(The Chosen)' 팬 행사 ChosenCon 4,500명 참석

마지막 시즌 앞두고 배우들 '감동과 아쉬움' 전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글로벌 성경 드라마 '더 초즌(The Chosen)'을 기념하는 팬 행사 'ChosenCon'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개최되며 수천 명의 팬들이 모였다고 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행사에는 4,500명 이상의 팬들이 미국 전역과 해외에서 참석해 드라마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보여줬다.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ChosenCon 행사에서는 배우들과 팬들이 함께하는 패널 토론, 예배 모임, 팬 미팅, 특별 영상 공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드라마 '더 초즌'의 배우들은 팬들과 직접 만나 작품이 가져온 영향과 신앙적 의미, 그리고 다가오는 마지막 시즌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팬 이벤트를 넘어 드라마 '더 초즌'이 전 세계 신앙 공동체와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됐다. 배우들은 팬들과의 만남을 통해 작품이 가진 의미와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배우들 "팬들의 사랑이 드라마를 지

탱"·"감사와 신앙 이야기 전해
드라마에서 마태를 연기한 배우 파라스 파텔(Paras Patel)은 팬들의 반응이 작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행사에 오면 '더 초즌'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다"며 "이 행사는 드라마를 지지해 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현재 제작진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는 시즌6 공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어 마지막 시즌인 시즌7 촬영도 계획하고 있다. 파텔은 작품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과정은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순간"이라며 "어려운 행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소중하게 즐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태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예수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도 변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작품이 보여주는 예수



지난 2월 20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ChosenCon 행사에 참석한 배우 마이클 이스칸더와 극중 예수 그리스도 역을 맡은 배우 조나단 루미(오른쪽). ©Photo courtesy of 5&2 Studios

의 인간적인 모습, 사랑과 배려가 인상적이었"이라며 "예수는 마태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줬고 삶의 목적을 찾게 했다"고 말했다.

◆시즌6·시즌7 준비 본격화...배우들 작품 여정 돌아봐

도마 역을 맡은 배우 조이 바헤디(Joey Vahedi)는 팬들과의 만남이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게 한다고 전했다. 그는 행사에서 한 팬이 도마 캐릭터 인형을 선물

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런 순간들이 매우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바헤디는 특히 시즌6에서 도마가 보여준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유다의 배신 이후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마의 의심과 질문이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탐구

하는 과정은 신앙 여정에서 의미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큰 야고보 역을 맡은 배우 에이브 부에노-잘라드(Abe Bueno-Jallad)는 ChosenCon 행사가 드라마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진정한 팬들을 만나며 이 작품이 왜 계속 이어질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배우들 "더 초즌 촬영은 삶을 바꾼 경험"·"팬들과 깊은 연결 강조

안드레아 역을 맡은 배우 노아 제임스(Noah James)는 촬영 과정에서 배우들 사이의 깊은 유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관계가 됐다"며 "드라마가 끝난 이후에도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질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촬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예수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언급했다. 당시 밤새 촬영이 진행됐으며 배우들이 함께 배를 타고 물을 맞으며 장면을 완성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마리아 역의 배우 바네사 베나벤테(Vanessa Benavente)는 팬들과의 만남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

는 "팬들이 캐릭터와 깊이 연결되어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을 보면 큰 감동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대오 역을 맡은 배우 지아바니 카이로(Giavani Cairo)는 드라마 참여가 자신의 신앙 회복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마지막 시즌에서 부활 장면이 어떻게 표현될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한 역을 맡은 배우 조지 잔티스(George Xanthis)는 드라마가 처음 시작됐던 시절을 떠올리며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시즌6 프리뷰 비디오 공개 예정...마지막 시즌 향한 기대

제작진에 따르면 드라마 '더 초즌' 시즌6는 2026년 가을 프라임 비디오(Prime Video)를 통해 첫 여섯 개 에피소드가 공개될 예정이다. 시즌6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2027년 봄 전 세계 극장에서 동시 개봉될 계획이다.

제작진은 시즌7을 마지막 시즌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예수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연 기자

유버전 나이로비 허브 개소... 아프리카 성경앱 사용 급증

케냐·나이지리아·남아공, 글로벌 일일 성경 참여 상위권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네셔널(CDI)은 전 세계 10억 회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한 성경 애플리케이션 유버전(YouVersion)이 케냐 나이로비에 지역 허브를 공식 개소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유버전은 지난 2월 23일(이하 현지시각) 케냐 허브를 출범시키며, 이를 통해 앱 내 현지화 콘텐츠 확충과 지역 사용자들에게 더욱 적합한 신앙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버전은 현재 자사 앱 패밀리를 통해 10억 회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경 앱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행사 현장에서 크리스천데일리인터네셔널과 인터뷰한 유버전 CEO이자 설립자인 바비 그루네왈드는 "특정 지역에서 앱 경험을 맥락화하려면 강력한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는 세계 여러 지역에 사무소와 인력을 배치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이제 그 시점이 왔다"

고 느꼈다"고 밝혔다.

◆브라질·멕시코·호주 이어 아프리카 확장...케냐·남아공 허브 운영

유버전은 1년여 전부터 지역 허브 전략을 본격화했다. 브라질과 멕시코시대를 시작으로 호주에 허브를 세웠으며, 최근에는 아프리카로 확장해 케냐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거점을 마련했다. 향후 유럽 지역 확장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루네왈드는 각 지역 허브가 교회 및 콘텐츠 제공자와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 지역 문화와 상황에 맞는 자료를 앱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섬기기 위해 왔다"고 나이로비 개소식 기조연설에서 말했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디지털 성경 참여 증가 현상을 언급하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깊은 영적 뿌리를 가진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과정일 수 있다"고 했

다. 또한 "아프리카가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는 지표로는 이미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냐 1,900만 설치·300만 월간 활성 사용자...나이지리아 4,000만 돌파

유버전에 따르면 케냐는 1,900만 회 설치를 기록했으며, 월간 활성 사용자는 약 3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케냐가 전 세계 성경 앱 사용 상위권 국가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성장세는 케냐에 국한되지 않았다. 나이지리아에서는 4,000만 회 이상 설치를 기록했고, 일일 참여도는 42% 증가했다. 에티오피아 역시 500만 회 설치에 근접했으며, 같은 기간 일일 사용이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버전은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 일일 성경 참여도 상위 국가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아프리카 지역이 단순한 신흥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성경 앱 사용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케냐 퍼스트레이디 환영 메시지... "하

나님의 말씀이 빛의 속도로 전달된다"

케냐 퍼스트레이디 레이첼 루토는 케냐 허브 개소를 환영하며, 이번 출범이 특히 젊은 세대와 가정에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인터넷을 통해 빛의 속도로 전달된다"며 "그 말씀은 가정에 도달하고,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도달하며,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지도자로서 나는 신앙이 가정을 강하게 세우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며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사회도 회복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그녀는 케냐 허브가 국경을 넘어 아프리카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이터 비용·접속 환경 고려한 '바이블 앱 라이트' 개발

유버전은 아프리카 지역 사용자들의 현실적 환경을 고려해 서비스 구조를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높은 데이터 비용과 높은 지역의 제한된 인터넷 연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블 앱 라이트(Bible



유버전 CEO이자 설립자인 바비 그루네왈드는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성경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은 오랜 영적 토대가 이제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

App Lite)를 개발했다.

이 버전은 저장 공간이 제한적인 휴대전화에서도 원활히 작동하도록 설계됐으며,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최적화됐다. 유버전은 2022년 이후 아프리카 커뮤니티에서 얻은 인사이트가 앱 기능 개선에 반영됐고, 이러한 개선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400개 언어 지원...스와힐라·줄루어 등 아프리카 언어 확대

성경 접근성 확대 역시 유버전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현재 유버전 성경 앱은 전 세계 약 2,400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스와힐리어, 아프리카언어, 코사어, 줄루어 등 다양한 아프리카 언어도 포함돼 있다.

어린이를 위한 '바이블 앱 포 키즈(Bible App for Kids)' 역시 스와힐리어와 아프리카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이 앱은 애니메이션과 인터랙티브 활동을 통해 어린 사용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최승연 기자

www.e-construct.co.kr

여러분의 욕실 문화를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성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좋은 제품만을 공급합니다

욕실 관련 전 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욕실용품 전문회사 이견비앤코

대표 최 훈 용 경기도 군포시 건건로 243-6(대야미동) 031-438-2576

욕실자재 전문회사
이견비앤코(주)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균포-007

능력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환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오섭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naver.com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80평 (철근콘크리트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 2.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물론 즉시 운영 가능
-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급매] 경북 영주 교회 및 주택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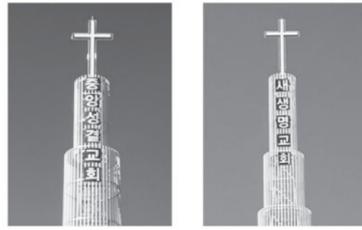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외 1필지
 -규모: 대지 62평 / 건물 50평
 -매매가: 1억 3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NAVER 검색창에서 **충만기업** 을 치세요

충·만·기·업



- ◆ LED 설치 및 네온수리 전문
- ◆ 종탑, 종각, 파이프탑 시공
- ◆ 각종 구조물탑 시공
- ◆ 대형십자가, 소형십자가 시공
- ◆ 각종탑 철거, 이전

TEL: 02-802-2005 H.P: 010-5276-9049
 FAX: 02-806-3334 (경남지점) 055-942-10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795-17 / 대표: 정현석 집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대표 김 덕 검 목사

-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기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교회성장을 위한 전국순회집회

-교회 성장의 갑골한 목회자와 교회개혁을 준비하는 목회자 위한 전국 순회 집회-

지역	일시	장소	대표인력
대전	25.12.12(금)-13(토)	대전 참소망교회(담임 박주애목사) 주소:대전 중구 수침로111번길 33	강성은 목사 010.2211.7139
서울 경인 강원	26.01.19(월)-20(화)	인천 감단비전교회(담임 박종민목사) 주소:인천 서구 환경로188번 2길 12	이수화 목사 010.9407.7226
부산 울산 경산	26.01.22(목)-23(금)	부산 향기로운교회(담임 김양덕목사) 주소:부산 사하구 율곡로14번길 62(다대동)	김양덕 목사 010.9155.0191
서부지역	26.01.26(월)-27(화)	태안 에덴교회(담임 김순남목사) 주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샘골 4길 29	김순남 목사 010.6477.2827
충북 청주	26.01.30(금)-31(토)	청주충신교회(담임 엄광섭목사) 주소: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 69	엄광섭 목사 010.4410.9115
전북 광주	26.03.05(목)-06(금)	완주 에덴교회(담임 양정옥목사) 주소:전북 완주군 비봉면 다리실길 31	양정옥 목사 010.6542.2661
전남 충남 경기 세종	26.03.09(월)-10(화)	천안 회복교회(담임 이종익목사) 주소: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길 3-12	박진우 목사 010.6314.3783
제주	26.03.20(금)-21(토)	제주 글로벌아교회(담임 김홍식목사) 주소:제주시 광양11길 2, 4층	이승우 목사 010.9969.6875

강사소개	강사명	소속
	양정옥 목사	예식성장교회부흥사 / 성장교회예식반
	곽윤관 목사	행복목회사역
	한영동 목사	목회교침사관학교 / 120명 자립교회
	정해숙 목사	말씀전도 부흥사 / 전도훈련
	홍지영 목사	부흥사 / 영성훈련
	임동호 목사	좋은교회운동본부 / 목회 AI활용법, 찬양
	오준실 목사	이야기하는 조직신학

주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혁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인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AI VOCA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60개 언어 번역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시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토익등 대용량 단어장

비우는 묵상, 그리스도로 채우다

신간 '사순절의 묵상'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의 시간은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한 절기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영적 여정이다. 신간 『사순절의 묵상』은 바로 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안내하는 묵상집이다. '렌트(Lent)'라는 단어는 '봄을 의미하는 동시에 '느림'을 뜻한다. 저자는 씩 달려온 일상을 잠시 멈추고,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보라고 초대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다. 이 책은 그 질문을 중심에 두고, 독자가 하루하루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깊이 바라보도록 이끈다. <사순절의 묵상>은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

의 묵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묵상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따라가며 독자들이 신앙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다루는 묵상에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다. 베드로가 빠진 이유는 단순히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물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세상 속에서 언제나 빠질 수 있는 존재이며, 잠사라도 세상 위를 걷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또 다른 묵상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신앙의 핵심 고백으로 제시한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신앙은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책은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는 두 가지 이미지로 십자가와 수건을 제시한다. 십자가는 구속을, 수건은 섬김을 상징한다. 저자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삶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이 십자가는 특별한 박해나 극적인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다. 사순절은 바로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이 책은 또한 현대 교회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까이 기다리며 긴장감 있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의 교회는 종말적 긴장감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해졌다는 것이다. 저자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살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타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순절의 묵상은 단순히 과거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순절의 묵상은 결국 한 질문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시작된다. 최승연 기자

쉽게 풀어 쓴 바울의 은혜 신학

신간 '은혜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다. 그러나 교회 안팎에서 이 단어는 위로와 감동, 호의나 분위기를 표현하는 말로 폭넓게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신간 『은혜란 무엇인가』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개념인 은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탐구하는 책이다. 저자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익숙하게 사용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불분명해진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라고

말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이 책은 성경과 신학의 토대 위에서 은혜의 개념을 차근차근 풀어내며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한다. 이 책의 신학적 배경에는 바울신학 연구로 잘 알려진 존 바클레이의 연구가 자리하고 있다. 바클레이는 저서 『바울과 선물』을 통해 바울이 말한 은혜의 개념을 정교하게 분석하면서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저자는 바클레이의 연구를 바탕으로, 바울이 이해한 은혜의 특징을 여섯 가지 개념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은혜가 단지 개인의 감정이나 체험에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은혜는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며,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세상에 보여 주신다는 것이다. 이 책은 학문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춘 신학 교양서로 평가된다. 최신 바울 연구의 성과를 반영하면서도, 어려운 신학 용어 대신 명료한 언어와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로 설명한다. 또한 각 장 말미에 묵상과 토론 질문을 수록해 개인 묵상뿐 아니라 소그룹이나 교회 공동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은혜란 무엇인가』는 복잡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도록 초대한다. 은혜는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결국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주신 선물이며, 그 선물은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익숙한 단어 속에 감춰져 있던 복음의 깊이를 다시 발견하도록 돕는 책이다. 최승연 기자

서울신대 양정식 교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출간

예배·찬양 사역 대변환 시대 맞아 21세기 교회음악 행정 지침 제시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교회음악학과(학과장 강수정)에서 18년간 재직해 온 양정식 교수가 한국 교회 목회자와 찬양사역자, 교회음악 전공자 및 예술 사역자들을 위한 교회음악 행정 안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출간했다. 이번 신간은 양 교수가 펴낸 네 번째 저서로, 기존 저서인 『성실한 마음 공교한 손』, 『예배자를 위한 작곡법』, 『음악

통론: 이것도 몰라!』에 이어 출간됐다. 그는 지난 10년간 한국 교회와 기독교 대학이 예배와 찬양 사역 전환에서 대변환의 시기를 지나온 현실을 반영해, 21세기 교회음악 사역 현장에 필요한 행정적 지침을 책에 담았다. 양 교수는 "한국 교회의 예배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음악 행정을 다룬 저서"라며 "독단적인 행정이나 행정이 없는 교회와 강단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인식 위에, 현대 교회의 목회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의 다양한 사역을 준비하는 재학생과 현장에서 예배·찬양을 담당하는 리더십을 돕고자 집필했다"고 전했다. 한편, 양 교수는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는 한편,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 한국현대예배학회 및 한국복음주의 교회음악학회 부회장, 페니 크로스비 재단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학 최초의 합창단인 '양상방' 선교합창단을 이끌며 국내는 물론 미국, 호주, 베트남 등지에서 재학생들과 함께 순회연주 사역을 펼치며 대학을 알리고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정지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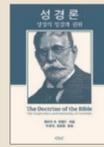
3월, 작가들의 말말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 하나님을 배제한 교육 안에서는 그 어떤 대안을 내놓아도 아이들의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없습니다. 뿌리가 병든 나무에게 가지치기만 한다고 건강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가지치기만 한 결과가 끝도 없이 무너지는 가정과 텅 빈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어 진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상처럼 느껴졌지만, 가장 본질적인 해답인 '가정, 교회, 학교가 하나 되는 교육'입니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만 주입하는 곳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함께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연합하여 한 아이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교육의 생태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학교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조형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온전한 교육'



그리스도를 먹는 일은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가 주장하는 물질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령은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려 그리스도를 막게 하신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몸이 한곳에 있다는 홀더리히 츠빙글리(Huldrych Zwingli)의 견해에 동의했지만, 성찬에 대한 칼뱅의 견해는 훨씬 더 강하고 분명했다. 그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비록 그의 몸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가리로 인해 분리된 것들을 하나로 묶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모든 피조 생명의 창조주로 고백된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으며, 성령이 생명의 제자이자 공급자임을 인정한다. 로버트 레섬 '성령적 성령론'



주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실 때 인간의 언어로, 혹은 좀 더 명시적이고 뚜렷하게 설명하면, 주님이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추측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의미하는 바는 그저 그 사람의 국가나 민족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현에 특성을 부여해 주는 그 사람 고유의 특정 언어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이것을 선지자 개개인을 향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적응이라고 말해도 좋다. 가장 인상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본성이 어떠한지에 관한 교회의 교리, 우리가 그 성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교회의 교리는 이렇게 처음부터 명확하게 규정되어 확고하게 전해 내려왔다는 것이다. 교회의 교리에는 고결하면서도 한결같은 지속성이 있어 모든 영감 이론에 맞서 왔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혼돈의 19세기에는 불신자들이나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성한 사변을 통해 더욱더 많은 영감 이론을 고안해 냈다. 따라서 영감에 관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교회의 영감 교리를 자신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분명히 좋을 것이다. 벤자민 B. 윌렛 '성령론'

추천사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행강 경교 (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제가 읊어낸 책입니다. 박효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탈루드의 지혜 목동과 다윗

사울 왕 시대에 한 남자가 젊은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곳의 영주는 전부터 이 젊은 여인을 탐내오던 참이다. 남편이 죽자 여인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 이려고 했다. 그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여인은 영주 몰래 고향을 떠나기로 작 정했다. 그녀는 가진 돈을 몇 개의 항아 리에 나누어 담고 그 위에 꿀을 채웠다. 그리고 증인이 보는 앞에서 죽은 남편과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항아리를 맡기고 는 다른 고장으로 떠나버렸다.

그녀가 그 고장을 떠나고 얼마 후, 여 인의 꿀 항아리를 맡았던 사람의 아들 이 결혼을 하게 되어 갑자기 꿀이 필요하 게 되었다. 그는 지난번에 맡아 두었던 꿀 단지가 머리에 떠올라 지하실로 내려가

뚜껑을 열어 보았다. 항아리 안에는 꿀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꿀을 조금 떠내니 그 밑에는 금화가 가득 빛나고 있 지 않은가. 다른 항아리에도 역시 금화가 들어 있었다. 그는 돈을 모두 쏟아내고, 새로 꿀을 사서 항아리마다 가득가득 채워 넣었다.

시간이 흘러 그 고장의 영주가 죽었다 는 소식을 들은 여인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맡겼던 항아리를 다시 찾으려고 했다. 그러자 이 나쁜 사람은 "내가 꿀을 맡을 당시의 증인이 보는 앞 에서 항아리를 받아 가는 것이 좋겠소." 라고 대답했다. 여인은 곧 증인을 데려왔 고, 죽은 남편의 친구가 그 증인 앞에서 항아리를 돌려주었다. 집에 도착한 여인

은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 고 금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너무나 억 울하여 울면서 재판관에게 하소연하였 다.

재판관은 여인에게 물었다. "그 항아리 에 돈이 들었다는 걸 아는 증인이 있는 가?" "없습니다. 저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구 나, 사울 왕께 가보아라. 그분이라면 혹시 너에게 힘이 되어 주실지도 모르겠다." 여인은 사울 왕을 찾아가다. 왕은 상 급 재판소로 가서 판결 받도록 명했다. 그러나 상급 재판관도 역시 항아리에 돈 이 들어있음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느냐 고 물었다. "저는 금화 이야기를 아무에 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다. 아무도 모 르고 있는 것을 다룰 수는 없다." 재판관 의 냉정한 말에 여인은 낙심하여 물러났 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여인은 훗날 왕이 된 다윗을 만나게 되었다. 다윗은 그 무렵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나 지혜롭 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여인은 억울한 사 연을 목동에게 털어놓았다. "증인이 없 다고 법정에서 재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느 편이 옳은가를 말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왕에게 가서 다윗 이 재판을 해도 되겠느냐고 승낙을 받아 오십시오. 만일 왕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시비를 가려 드리지요."

다윗의 말에 여인은 다시 사울 왕을 찾아갔다. 왕은 그 소년을 불러도 좋다고 허락했다. 여인은 목동을 왕 앞으로 데 리고 왔다. "그대가 재판을 해보겠는가?" "허락하여 주신다면 힘써 해보겠습니다." "좋다. 해보도록 하라!"

다윗은 고소당한 남자를 재판정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호소한 여인에게 문제 의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여인이 그 항아리를 가져오자, 다윗은 먼저 여인 에게 질문을 했다. "이 항아리가 틀림없는 가?" "틀림없습니다." 다음엔 고소를 당한 남자를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이 항아리가 저 여인이 맡겨 두었던 항아리 임에 틀림없는가?"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하인에게

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해서는 꿀 항 아리 속에 들어 있는 꿀을 모두 빈 그릇 에 쏟아 냈다. 그리고 나서 빈 항아리 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하나 씩 두들겨 깨뜨렸다. 그리고는 그 깨진 조각들을 조심조심 살펴보았다. 그러자 항 아리 파편들 속에서 금화 두 닢이 발견 되었다. 꿀이 굳어 항아리 밑바닥에 붙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다윗은 즉시 거짓말을 한 남자를 향 해 명령했다. "당신이 맡았던 돈을 여서 이 여인에게 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들은 이 재판 소식을 전해 듣고는 다윗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탄복을 했다. 자기 를 아는 것이 최대의 지혜이다.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제곱

바이블지식IN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복종은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입 니다. 성경은 자명하게 명령합니다. "아 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 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됴고 같 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 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 나 라"(엡 5:22-24).

심지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도 남편의 머리 됴는 원칙은 여전히 존재하 였습니다(딤후 2:13). 아담이 먼저 지음 을 받고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서 지어졌습니다(창 2:18-20).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여러 형태의 권위를 세우 셧습니다. 사회 정의를 집행하고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고 먹이는 목사, 아내를 사랑하 고 부양하는 남편, 자녀를 훈계하는 아 버지 등의 권위입니다. 이때 각각의 경우 에 있어서 복종이 요구됩니다. 시민은 정 부에게, 양떼는 목자에게, 아내는 남편에 게, 자녀는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휴포타소' 는 진행형 동사 형태입니다. 이것은 하나 님과 정부와 목사, 그리고 남편에게 복 종하는 것은 일회성 행위가 아님을 의미 합니다. 그것은 행동의 양식이 되는 계속 되는 태도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종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을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입니다(약 1:21; 4:7). 그리고 각각의 그 리스도인은 겸손하게 살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피차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 어 야 합니다(엡 5:21). 고린도전서 11장 2-3 절은 가족단위 내에서도 남편은 그리스 도께 복종해야 하고(그리스도께서 하나 님 아버지께 하셨던 것처럼) 아내는 그 녀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 다.

결혼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관한 수많은 오해가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심지어 성경적인 역할을 제 대로 아는 사람들 중에도 소위 여성 '해 방'을 지지하기 위해 그 역할을 거부하 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 가족 단 위가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상 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은 놀 람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분의 계획을 즐거운 마음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복종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복종 은 열등이나 무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가치 를 조금도 포기함이 없이 아버지의 뜻에 변함없이 복종하셨습니다(눅 22:42; 요 5:30).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에 대해 세 상은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 리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에베소서 5장 22-24절을 신중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1] 아내는 모든 남자에게가 아니라 한 남자(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 다. 복종의 규칙은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 위까지 전체적으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2]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께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녀의 남편에게 기꺼 이 복종해야 합니다. 여자는 자신이 예 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남편에 게 복종합니다. [3] 아내의 복종의 예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복종입니다. [4] 아내의 능력, 재능, 또는 가치에 대한 언 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실은 결코 그녀가 열등하 다거나 가치가 덜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범사(모든 일에)"를 제

외하고는 복종의 명령에는 조건이 없습 니다. 즉, 남편이 자기 아내의 복종을 받 기 전에 적성 검사나 지능 테스트를 통 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많은 부분에서 더 나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남편의 리더십 에 복종함으로써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건한 아내는 그녀의 거룩한 행동만으 로도 '말없이' 그녀의 믿지 않는 남편마 저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벧전 3:1).

복종은 사랑의 리더십에 대한 자연스 러운 반응이어야 합니다. 남편이 그리스 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의 아내를 사랑하면(엡 5:25-33), 아내는 복 종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 지만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더라도 아 내는 "주께 하듯"(22절) 복종하라는 명

을 받습니다. 이는 아내가 하나님께 순 종한다면, 즉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 인다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의미합니 다. "주께 하듯"이라는 비교는 또한 그 녀가 따라야 할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미명 하에 사회 법이나 하나님을 거역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 내는 옳고 합법적이고 하나님을 기리는 태도에 순종합니다. 물론 아내는 학대에 대해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는 옳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리 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대를 정당 화하기 위해 '순종의 원칙을 사용하려 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악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이기심과 횡포를 허 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 이고(25절), 남편은 하나님 앞에 그 명령 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하나 님 앞에서 이실직고해야 한다는 것을 기 억하고 그에게 주어진 권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자비롭게 행 사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 사랑을 받는 것처럼 아내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사 랑을 받는다면, 복종은 어려운 것이 아 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 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말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복종은 남편에게 명예와 존경을 가져다 주고(엡 5:33) 남편의 부족을 채워줍니다. 이것이 가족의 기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입니다.

매튜 헨리 성경 주석서는 "여자는 아 담의 옆구리로 만들어졌다. 여자는 남 자를 지배하기 위해 남자의 머리로 만 들어지지 않았고, 남자에 의해 짓밟히 도록 남자의 발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남자와 동등 하라고 남자의 옆구리고 만들어 졌고, 남자의 팔 아래 에서 보호되고 사랑 받기 위해 남자의 심장에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33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의 직접적 인 문맥은 성령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에베와(5:19) 감사로 충만한 가운데(5:20) 복종합니다(5:21).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알려준 후에 22-24절 에서 아내들에게 성령 충만을 적용시킵 니다. 아내는 여자들이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성경은 결코 이렇게 가르치지 않 습니다), 결혼 관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 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 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갯케스천스 제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권혁승 칼럼 야곱의 세 단계 화해 전략(3)

날마다 말씀 따라 새롭게(127)



권혁승 박사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아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창 32:24-28)

야곱의 마지막 화해 전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였다. 지금까지 야곱이 보여 준 두 단계 화해 전략은 매우 지혜롭고도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 그러한 준비와 함께 야곱이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야곱이 마지막 단계로 기도의 전략을 세웠던 근본적 이유다. 야곱의 기도 전략은 화해의 사절단을 파견하고 예물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32:9-12). 모두 네 절로 되어 있는 야곱의 기도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1)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상기하고 있다(9절). 이는 현재 그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그

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을 강조한 것이다. (2) 그는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다(10절).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고향을 떠났던 그가 두 때를 이루며 돌아오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이다. (3)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11절). 겁에 질려 있는 자신과 가족들을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다. (4) 야곱은 그의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도록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의미한다. 야곱의 기도 전략은 절박하게 배수진을 친 기도로 이어진다. 그런 야곱의 모습

은 32장 24-32절에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기도는 앞의 것과는 전혀 분위기가 달랐다. 앞선 기도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등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면, 여기에서는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필사의 기도였다. 구하는 기도 내용 역시 ‘내게 축복하여 주소서’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는 결코 물러날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는 실로 암복강을 뒤로한 채 버티는 배수진 기도였다. 야곱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기도대로 형 에서의 마음은 변화를 받아, 20년간 누적되었던 감정의 골은 매워졌다. 그리고 서로 원수를 자랐던 형제 간의 갈등은 해소되고, 감격스러운 화해의 포용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응답보다 더 먼저 주어진, 더 중요하였던 응답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다. 그것은 야곱이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것이기도 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관계에서 가장 근본적 원인 제공자였다. 그런 야곱이 간사한 옛 모습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탄생한 것이다. 에서에게 20년 동안 누적된 분노를 푸는 변화가 있었듯이, 야곱도 새로운 인물로 변화되었다. 기도 응답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도하는 자신의 변화이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강조한,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일 수도 있다(렘 33:3).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도면밀하게 세운 세 단계

화해 전략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다. 우리의 감격적 해방은 곧 남북 분단의 비극적 역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화해를 향한 야곱의 적극적인 자세가 몹시도 부럽게 느껴지면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남북 사이의 갈등에 너무도 큰 장애물들이 많아서일까? 아니면 새로운 통일시대를 향한 우리의 비전이 선명하게 세워지지 않아서일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화해 전략인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앞서주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기다리거나 준비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있는 그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손안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강지윤 칼럼 파도를 직면할 것!



강지윤 박사

저는 바다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에메랄드 빛 바다. 잔잔히 펼쳐져 있는 바다를. 그래서 휴가를 떠날 때면 언제나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가졌던 휴가 기간 동안 2시간 정도 배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갈 때는 잠잠하던 바다가 돌아올 때는 몹시 사나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영도 못 하는 저는 파도가 높이 오를 때마다 차솟았다가 다시 폭 가라앉는 배 안에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배 안에는 삼백 명 정도의 승객이 있었고, 그 중에 몇몇은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오악, 난 이런 바다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울 듯한 표정으로 소리 지르자 옆에서 딸아이가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펄럭이는 제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아, 저는 장피한 줄도 모르고 한동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은 1시간 55분... 그 시간 동안 공포에 시달릴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구도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주위를 둘러보니 태반의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지? 이



해할 수 없었지만 잠든 그들 때문에 오히려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허리를 곧추세우고 뱃전에 부딪치는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바람에 숨을 몰아쉬는 바다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심호흡을 하자, 불안과 두려움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 놀라웠습니다. 1미터, 2미터까지 치솟는 파도를 눈을 부릅뜨고 직면하자, 배의 오르내림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파도에 몸을 싣고 출렁이며 앞으로 전진하는 이 배가, 결코 부서지거나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나자 마

음이 평안해졌고 놀랍게도 재미있기까지 했습니다. 파도를 직면하니 침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그것은 오래 전 깨달음을 재확인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파도를 넘어왔던 나, 그리고 당신은 알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파도를 보면 본능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웅크리게 됩니다. 제가 앞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질끈 감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명료한 눈빛으로 파도를 직면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생의 파도를 회피하며 두려움이 떨고만 있지 말고, 그 파도를 직면하며 두려움을 넘어설 때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시련에 부딪히고, 배신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파도는 숨넘어갈 정도의 공포를 싣고 우리 자신을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피하면 평생 피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지 않으면 평생 두려움에 시달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야 자유도 되고 용서도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파도를 만날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파도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파도를 직면할 용기가 있는 한 우리는 침몰하

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눈을 들어 파도를 보기만 해도 빠져나올 방법이 점점 보일 것입니다. 파도를 직면할 힘조차 없더라도, 그저 눈꺼풀만 들어 바라보기. 조금 더 눈에 힘을 주어 직면할 것! 내가 직면하는 동안 파도는 더 이상 파도가 아니고, 내가 탄 배는 안전하며 그 출렁거림을 놀이기구를 타듯이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탄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로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으므로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하면 파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기구가 될 것입니다. 파도를 지나오면서 죽음 같은 공포의 시간을 넘어서니 영혼의 평강과 행복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떨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는 행복과 자유를 이루어냈습니다.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지만 지난날의 병적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실존적인 건강한 외로움이며 누군가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 금방 사라지는 그런 외로움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파도를 직면하고 회피하지 마세요. 파도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파괴하지 못 하도록 두 눈 맑게 뜨고 바라보세

요. 그러면 반드시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파도는 없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파도를 넘을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 파도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용기와 성숙을 가져다주는 것을 받게 된다면, 당신은 이제 다 치유된 것입니다.

은혜 한 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24

and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Romans 3:24

基督日報
기록일보 www.cdaily.co.kr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전·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교계·선교·NGO 동향

교계

2026년 3월 5일(목) 한국 기독교계 주요 일정 현황			
시간	단체/기관	행사/회의명	장소 및 비고
상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기독교여성선언' 발표	사순절 사회적 책임 강조 활동
10:00	북한기독교총연합회	고 오성훈 목사 통일선교장 위로예배	서울성모장례식장 (송실대 공동)
11:00	예장통합 (총회 본부)	평신도위원회 제110회기 정책세미나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2층
13:30	예장통합 (총회 본부)	다음세대비전위원회 제110-2차 회의	총회청림100주년 기념관 7층
16:00	북한 선교 관련 단체	고 오성훈 목사 유가족 및 관련 기관 주관 위로예배	서울성모장례식장
18: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고 오성훈 목사 북한선교위원회 주관 위로예배	서울성모장례식장
20:00	뉴라이프교회	교구장 모임	온라인(비대면)
준비	오스틴한인장로교회(AKPC)	선교부총회(3/6 시작) 준비 일정	교회 내 선교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기독교여성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선언은 사순절 기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3월 5일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평신도위원회 제110회기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며,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다음세대비전위원회 제110-2차 회의'를 진행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역시 4월 5일로 예정된 부활절을 대비하여 본부 차원의 실무 검토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한 선교 및 지역 교회 소식 고 오성훈 목사와 관련된 위로예배도 서울성모장례식장에서 잇따라 열린다. 오전 10시에는 북한기독교총연합회와 송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가 주관하는 위로예배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후 6시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주관의 예배가 진행될 계획이다.

개별 교회 단위에서는 뉴라이프교회가 오후 8시 온라인 교구장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오스틴한인장로교회(AKPC)는 3월 6일부터 시작되는 선교부총회를 위한 최종 준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선교

2026년 3월 5일(목) 선교단체 주요 일정표			
주관/단체	시간	주요 일정 및 내용	장소/형태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00:00 - 24:00	제11차 한인세계선교대회 2차 사전 등록 진행	온라인 접수
에스더기도운동	09:00 - 05:00	제35기 기도선교사 훈련학교(1주차), 제12기 북한 전문인 선교사 훈련학교(2주차 강의), 매일 철야기도회	에스더기도센터 / 온라인(Zoom)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종일 (1일차)	2026 상생 컨퍼런스 (주제: 상생-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경주 더케이호텔
한국누가회(KCMF)	종일 (개강)	선교훈련원(CMTO) 기초반 1기 교육 시작	온-오프라인 병행

2026년 3월 5일, 국내외 주요 선교 단체들은 다양한 일정을 진행한다.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는 오는 5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인세계선교대회'의 2차 사전 등록을 3월 5일 당일 온라인을 통해 계속해서 접수한다. 지난 2월 28일 1차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인산던 2차 등록비가 적용되어 접수가 이뤄진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영등포 에스더기도센터에서 종일 훈련과 기도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전 9시부터는 제35기 기도선교사 훈련학교 인턴십 과정이 진행되며, 저녁 7시 30분부터는 제12기 북한 전문인 선교사 훈련학교의 2주차 목요 강

의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밤 11시 30분부터는 매일 철야기도회가 이어진다.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는 3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2026 상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상생-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교단 내 젊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누가회(KCMF) 선교부는 의료 전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훈련원(CMTO) 기초반 1기' 교육을 3월 5일 공식 개강하며 약 3개월간의 훈련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장지동 기자

NGO

2026년 3월 5일 목요일, 국내 주요 기독교 NGO 단체들이 사회 복지, 교육, 시민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정된 일

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오전 11시 성락성결교회에서 '2027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 한국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견에는 지형은 이사장과 정병오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컨퍼런스 취지를 설명한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온라인을 통해 마약 근절 및 중독 예방을 위한 '약속'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 유통 현황과 예방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상반기 교육 사업을 수행할 전문 강사 및 활동가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당일 확정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회 복지 및 전문 교육 과정 개강 지역 복지 및 전문인 양성 활동도 이어진

다. 부산기독교총합사회복지관은 오전 10시 지역 주민을 위한 스마트폰 기초 교육 과정을 개강하며, 전문 성경 교육 단체인 아하자(AHAJA)는 도봉강북지부에서 12주 과정의 전문강사 양성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일공동체는 이날부터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공식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천 지역 기독교 NGO 연합은 오전 11시 송내어울마당에서 연합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사회 봉사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한세글로벌봉사단의 미국 순회 활동 참여자 및 전문 과정 지원 모집은 3월 5일 밤 11시 59분을 기해 온라인 접수가 최종 마감될 예정이다.

최승연 기자

2026년 3월 5일(목) 기독교 NGO 및 봉사 단체 주요 일정표			
시간	단체명	일정 성격	장소 및 방법
10:00	아하자(AHAJA)	전문강사 양성 교육 과정 개강 (12주 과정)	도봉강북지부 교육장
10:00	부산기독교총합 사회복지관	지역 주민 대상 스마트폰 기초 교육 개강	복지관 내 교육실
11:00	기독교윤리실천 운동(기윤실)	2027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 준비위 기자회견	성락성결교회 801호
11:00	부천 기독교 NGO 연합	지역 NGO 연합 활동 및 정기 행사	송내어울마당 숭안아트홀
18:30	굿네이버스	마약 근절 및 중독 예방 '약속' 온라인 교육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
종일	굿네이버스	교육 강사 및 활동가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종일	다일공동체	2026년 상반기 신규 인력 공식 근무 개시	각 사업장 현장
23:59	한세글로벌봉사단	미국 순회 활동 및 전문 과정 지원자 모집 마감	온라인 접수 시스템

월드비전, '2026 꿈엽서그리기대회' 참가 접수 시작

월드비전(회장 조병환)이 3월 2일부터 국내 최대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2026 꿈엽서그리기대회'를 개최, 전국 초등학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작풍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꿈엽서그리기대회'는 누적 200만 명의 아동이 참여한 월드비전의 대표적인 세계시민교육 캠페인이다. 대회는 아이들이 기후위기, 빈곤 등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에 공감하고 그림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표현하며 세계

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올해는 '우리가 함께 지키는 지구'를 주제로, 기후위기로 고통 받는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고민하고 그림으로 약속하는 장을 마련한다. 월드비전 기후환경교육은 환경부가 지정한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적 전문성을 인정받아 참가 아동들이 기후위기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천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꿈엽서그리기대회는 전국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월드비전 꿈엽서그리기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

계시민교육 영상을 시청한 뒤 학교나 개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참여 아동들을 위한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 대상작 3점은 아프리카 우간다 현지 학교 벽화로 제작 될 예정이며, 주요 수상작 10점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대회 접수는 6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오는 8월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상은 △대상(교육부장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월드비전 국제 총재상 등) △최우수상(EBS 사장상, 한국미술협회상 등) △우수상 등으로 나뉘

어 진행된다.

이외에도 한 학급에서 15명 이상 참여 시 스낵 박스를 제공하며, 교사용 학급 놀이 10종 안내 자료를 함께 지원해 교실 안에서 기후환경교육을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꿈엽서 제출 시 아프리카 아동에게 연필이 선물되는 매칭 그랜트 기부 방식으로 진행돼 대회 참여만으로 나눔의 기쁨을 배울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번 대회는 월드비전 홍보대사인 인기 크리에이터 도티와 비전아티스트 엘런 니가 함께한다.

최승연 기자

홀트아동복지회-현대이지웰, 한부모가정 아동 식자지원사업 '따뜻한 한끼' 본격 추진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현대이지웰그룹 계열 토탈 북지 솔루션 기업 현대이지웰(대표 박종선)과 함께 한부모가정아동 식자지원사업 '따뜻한 한끼'를 3-9월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 6-11세 아동을 양육하는 20가정이며, 신청은 3월 11일부터 20일까지이다.

정기적인 식사 지원은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경제 적시각적 부담을 덜어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동의 신체적 건강 증진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학습 집중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 발달을 돕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최승연 기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국도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라틴의 미래, 우리 모임의 희망”... UBF 중남미 지부장 수양회 성료

칠레 산티아고서 70여 명 참석, ‘경건과 사랑’으로 무장한 사흘간의 성회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가 얼마 전 사흘간 칠레 산티아고 소재 한 수녀원 피정의 집에서 ‘중남미 신년 지부장 수양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수양회에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 및 지부에서 약 7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다만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일부 지부는 비자 문제와 오는 5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선교대회 여비 마련 등의 사정으로 불참했다. 수양회 프로그램은 성경 강해와 선교

보고, 정책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주제 강연은 ▲엔리케 목자(멕시코)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란워드 목자의 ‘서로 사랑하라’ ▲다니스 목자(에콰도르)의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라’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스필렌 목자가 ‘만물의 찌꺼기 된 바울을 제목으로 폐회 메시지를 전했다. 이외에도 상파울루 리더(한디모데) 안수식과 함께 선교 정책 발표(상파울루 정노아, 벨리즈 사라장), ‘현지 목자를 말씀



UBF 중남미 지부장 수양회 참석자 기념 사진. ©UBF

의 종으로 성장시키는 길’(에스테반 조) 특히 이번 수양회에서는 중남미 사역 특강 등이 이어졌다.

지부장 선교사들은 호스트로서 헌신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전여호수아 선교사(칠레)를 차기 중남미 코디네이터로 선출했다. 실무 책임을 맡은 루이 잠브라노 목자(칠레)는 회계사로 자립하며 전여호수아 선교사와 동역하는 현지 리더의 성숙한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현지 코디네이터 박이삭 선교사는 이번 수양회가 일원화된 리더십 아래 현지 리더들과 선교사 2세대들이 동역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남미 여러 나라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센터는 센터 구입 3년 만에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기록해 주목받았으며, 이에 따라 내년 지부장 수양회 개최지로 아르헨티나가 확정됐다. 행사 마지막에는 조에스터 2세 선교사가 8개월간 수장보강한 ‘라틴 개척 50주년 기념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수양회 후 이어진 투어 일정은 볼리비아에서 칠레로 파송된 조다니엘 2세 선교사가 가장 지원했다. UBF 측은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립 신앙을 지키는 중남미 동역자들과 선교사 2세대들이 라틴 사역의 희망임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장지동 기자

한세대, 2026학년도 입학식·1학기 개강예배 개최

HMG홀서 1,200여 명 참석...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새 출발 다짐



한세대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1학기 개강예배 진행 사진. ©한세대

한세대대학교(총장 백인자)가 최근 교내 HMG홀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 및 1학기 개강예배를 열고 새 학기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백인자 총장을 비롯해 최진탁 부총장, 임은영 부총장, 신입생과 재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예배에서 조지훈 교목실장은 “별을 따라서를 제목으로 설교하며 “한세대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을 드러내는 별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 별이 되기를 원한다”며 “학생들이 한세대대학교라는 별을 따라갈 때 미래를 더욱 값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학생들의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길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백인자 총장은 인사말에서 “2026학년도라는 새로운 희망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한세대대학교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며 100주년을 향해 비상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큰 꿈을 품고 학업에 열정을 다하며 서로를 사람으로 섬기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한세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학생”이라며 “겨울방학 동안 강의실과 실습실을 확충하고 본관 3층에 현대적인 로비를 조성하는 등 교육 환경 개선을 마쳤다. 캠퍼스가 학생들이 머물고 싶고 꿈

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입생과 재학생 대표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으며, 김지영(사각정보디자인전공), 박지현(사각정보디자인전공), 송유진(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이인혜(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등 신규 전임교원과 주요 보직자가 소개됐다. 학생들은 제73대 하리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라는 구호를 외치며 새 학기 각오를 다졌다. 한편, 한세대대학교는 ‘글로벌 CHAMP형 인재’를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창의성(C), 나눔과 배려(H), 비판·분석적 사고(A), 소통(M), 문제해결(P)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6학년도부터 학사구조를 개편했다. 신학과, 간호학과를 비롯해 인문사회학부, IT학부, 디자인학부, 예술학부, 자유전공학부 등 5개 학부 16개 학과·전공 체제로 운영하며, 수시정시모집을 통해 2026학년도 입학정원 100%를 충원했다. 장지동 기자

한일장신대, 2026학년도 입학식·1학기 개강감사에배 개최

신입생·재학생 등 400여 명 참석, 영성과 학문 겸비한 지도자 양성 다짐



한일장신대 2026학년도 입학식·1학기 개강감사에배 진행 사진. ©한일장신대

한일장신대학교(총장 황세형)가 최근 교내 예배당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 및 1학기 개강감사에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신입생과 편입생, 재학생, 교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새 학기의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예배는 찬양과 기도로 시작됐으며, 황세형 총장은 로마서 10장 13-17절을 본문으로 “들음과 들려짐”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황 총장은 “믿음은 들음에

서 나며, 그 들음은 전파하는 이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말씀을 듣는 공동체를 넘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서야 한다. 또한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입학식에서는 교수진과 교직원들이 참석자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학교 구성원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학생

들을 격려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공유했다. 한편, 한일장신대학교는 2026학년도 1학기 동안 영성과 학문을 겸비한 인재



황세형 총장이 설교를 하고 있다. ©한일장신대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및 영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지도자 양성에 힘을 쏟는다. 장지동 기자

침신대, 2026학년도 입학식 개최... 총 375명 입학

피영민 총장 “거듭남의 복음 전하는 사명 공동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 진행 사진. ©침신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총장 피영민)가 최근 교단기념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학식은 교무처장의 사회로 학사행진을 시작해 개회사, 찬송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기도, 성경봉독(출애굽기 17:8-16), 설교, 학사보고, 축사, 격려사, 화장실 환경개선 후원 경과보고, 헌물기증, 감사패 증정, CP장학금 증정, 교직원 소개, 교가 제창,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설교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최인수 총

학사보고에 따르면 2026학년도 신입생은 학부 183명이며, 신학대학원 석사 128명, 상담대학원 석사 25명, 목회신학대학원 박사 10명, 일반대학원 석사 21명, 일반대학원 박사 8명 등 총 375명이다. 축사는 에터미 도경희 부회장이 맡았다. 도 부회장은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히며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중식 목사(포항중앙침례교회)와 조요한 목사(총동창회 회장)가 격려사를 전하며 신앙을 중심에 둔 삶과 학업을 당부했다. 이날 화장실 환경개선 후원 경과보고도 진행됐다. 최현숙 박사(기획처장)는

강의동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 도경희 부회장은 해당 사업을 위해 약 4억 2천만 원 상당의 현물을 기증했으며, 학교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는 CP장학금 7천 2백만 원을 증정했다. 피영민 총장은 “우리 대학은 성경을 가르치며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사명을 지닌 공동체”라며 “신입생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영성 이야기



이선종 목사

영성이란 하나님을 향한 폭넓은 경험과 감성 자체가 지닌 멈추지 못하고 흐르는 영적 활동과 그 영이 지닌 성품을 두루 말할 때 쓴다. 평소시에도 하나님에게서 스피릿을 담고 사는 이들 에게 저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삶의 예배의 자세에서 풍기는 어떤 느낌을 말할 때도 쓴다. 한마디로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성으로 존재적 삶의 자리에 있는 흔적이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이란 자로 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지라 이 말을 사용하는 자체를 두고도 말들이 많다. 성경에는 이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비난하기도 한다. 심지어 영이 들어간 모든 합성어들을 배반적 종교용어로 취급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모든 종교적 정신활동을 두루 폄하할 때 십자가 얘기를 뺀 다른 정신활동 행위에 대해 부정적 느낌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그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어떤 함량이 있음을 느낀다. 매우 깊은 비밀스러운 흐름이 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사실 하나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데 이 예수의 구원사건이 낳은 성품과 인격으로 빛나는 행적과 흔적이 세상의 곳곳에 스피릿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영

성은 수행자의 행위(찬송, 묵상, 명상, 기도, 고도의 정신활동)로만 남는 게 아니라 십자가 구원 사건 자체에서도 저절로 흘러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시는 지적인 현장에서 영향받은 정신 활동(영성)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흐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꾸준히 인간과 친교하시고자 하시기에 현장에 그의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매우 가까이 임재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어린아이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어린 아이에게 이런 영성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을까? 가만 보니 아이들은 필요 이상으로 심각하기도 고만하기도 않으며 저간의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무관심하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세상과의 대면에서 있을 때 행동과 지식이 있어 과부하에 걸려있다. 지나치게 사람 관계에 치중하고 침묵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과 우주의 깊은 지식과 영에 대해 무관심하다. 이 관계의 과부하를 저치면 온 우주(내면과 외면)에는 하나님성 아닌 것이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성을 가장 많이 가진 자들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어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들

① 민감함 (첫 경험에 반응하는 몸과 마음의 순발력이 매우 빠르고 적극적으로 강렬함)

② 순진함 (처음 대하는 사람과 사물의 저간의 사정에 대해 고려할 지식과 경험이 없음. 그래서 낮은 무지함에 솔직함)

③ 무식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전무함. 자신의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으며, 지나친 전문 지식과 상식을 넘는 2차적 적용지식까지 골똘하게 사교의 범위를 넓히지 않음)

④ 즉발성 (울음, 웃음, 놀람, 민감함, 예민함)

⑤ 설렘 (처음에 경험한 어떤 경우에도 첫 반응에 대한 흥분과 열정과 재미를 느낌)

⑥ 단순함 (신체 반응에 잘 따르고 -놀고 자고 먹고- 있는 그대로 반응한다)

⑦ 믿음 (보호자가 있음으로 인해 온전히 자기 세상이 된다)

하나님성은 위에서 열거한 것들처럼 전제가 없는 것들이다. 무엇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여기에서 배제된다. 깊이나 높이나 넓이를 깊이 이해하고 느끼는 행보보다는 하루살이가 보는 신기한 자기 반응이 더 많다. 처음 것들이 갖고 있는 설 것이 더 많다. 외부 반응에 내적으로 민감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신기한 자기 반응자들 에게서 동조반응을 내신다. 찬양은 자기 반응이 쉽고 민감하고 적극적이며 속도

빠르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성(영성)이 있다고 느낀다. 이런 자들은 고루하지 않고 가치를 믿고 나가거나 지시하지 않으며 언제나 모든 이들의 좋은 것과 열렬히 친교하려 한다.

영성은 죽이 빠른 자들에게 있다고 해야 한다. 찬양은 그들의 저장된 무게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다. 다만 민감한지라 좋은 것에 남달리 반응하고 좋아하고 공감하고 쉽게 잘 통하며 어울린다.

오늘날 주류 교단과 대형 교회와 시스템이 갖추어진 행정력이 있는교회의 찬양대나 찬양팀들은 어느새 세련되어져 무대 프로듀싱이나 찬양의 창법이나 예배 설계와 주보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더 이상 적은 재능을 가진 자가 내뿜는 설익은 노래가 설 자리가 없다. 오직 전문가들의 정해진 창법과 전문적 색깔으로 도배된 더 이상 좋아질 만한 것이 없는 듯한 디자인과 영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웬지 무엇 하나를 잃은 듯하다. 어느새 종교적 감성들이 독특한 과패턴과 과스타일로 지정되어 버렸다. 때때로 그것들이 조금씩 오래되어 화중들이나 교회 리더들이나 의사결정 구조에 있는 이들의 정서적 범위 안에 형성되어 버렸다. 그 날 그 교회에 새로 온 사람이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타성과 지나친 의식

주의와 형식미가 스며들어 있다. 새로운 이들에게 있는 낮은 영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형성된 비본질의 형식들이 예배가 지닌 새로움을 앗아간다.

찬양대나 찬양팀에서 불리는 교회음악 작곡가의 작품들과 지휘자들이나 찬양팀 리더들의 선곡 스타일 등도 화중들에게 이미 기존에 형성된 유행 스타일이나 작곡가들이 쓰는 대중적 기호와 함께 혼재되어 있다. 새로운 것이 없는 것들도 자격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일들은 화중들에게 반응이 있어서 자격을 얻는다. 그 세대가 지닌 사조나 시대에 사는 문화환경에서 피할 수 없는 것들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기에 늘 새로운 영성에서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뒤돌아보고 그 날 그 시점에 교회음악가들과 참여자들 과 점검하고 그들의 영을 헤아려 보고 선택하고 추스르고 매 순간 새로움이 주는

신령한 영을 통해 개정해야 한다.

영성은 기존용재의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즉 영의 축에 있다. 동시에 새로운 것은 지식과 통합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초에 지식과 통합으로 새롭게 피어날 날것의 신선함에 있다. 하나님성은 모든 시간과 현장에 있는 신성함의 샘에서 나온다.

예배는 날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 이상이다. 우리의 존재도 그렇고 우리의 소망과 믿음과 사랑은 영원하다. 제한이 없이 늘 새롭고 거대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신비한 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전에 대접받았던 오래된 것들 위에서 언제나 다시 그 이후에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새로움에 피어나는 어린이의 낮은 영을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서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선종 목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B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Christian Music(MCM) / Korea Presbyterian College of America(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Thm) 수료 Cantor, Music Pastor/ 카리타스합창단 음악감독 VKCC 지휘자 / 성서 번역가

춤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를 소망하며

찬양한표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손경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고후 2:15-16)

우리 선교단 선교센터는 큰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5층인 센터에서 밖을 내다 보고 있노라면 울긋불긋 멋진 설악산에 가지 않았어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과 차가운 바람, 길가 가로수나무에서, 길거리의 오고 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계절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굳이 밖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창문을 열고 땀을 흘리며 연습을 하다보면 땀을 식혀주는 바람을 통해서도 어느 날 가을이 왔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누구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 있었던 자리에서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어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라는 성령님의 질문에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요..!"라고 외쳤다. "주님! 제 모습 삶에서, 저의 찬양 가운데서 그 향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예향이 되었다. 예향이 되고 싶었다. 예수님의 향기만을 가진 춤을 추고 싶었다.

워십댄스는 춤이기 이전에 찬양이고 경배이다. 먼저 찬양이고 경배이어야지만 춤이 된다. 이 모든 것의 주인과 목적되신 주님이 온전히 춤에서 드러날 때 워십댄스가 된다. 그 때 원하던 원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자리를 진동하며 퍼져나간다. 향기가 되고 싶은 내 의지가 아닌 내 안의 주님이 그 분의 향기를 드러내신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 본 것입니다(요일 1:1)

직접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듯 그분과 친밀한 사람들이 그분에 의한 그분을 위한 춤을 출 수 있다. 그때 비로소 향기가 풍겨 나와 주위에 퍼져 나간다. 춤추는 자가 단지 듣고 보고 만져본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위에 요한일서의 성경구절 말씀처럼 나는 안무를 하고 싶었다. 예향의 장르를 초

월한 모든 안무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기를 바랐다. 함께 지금 노래하고 있는 주님을 느끼고 만져보길 원했다. 주님은 간절한 그 마음을 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춤은 몸으로 연주하는 음악이다. 악기를 연주하듯 몸으로 연주한다. 각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과 특히 거룩한 춤을 추길 원하는 이들과 함께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느끼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한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길 기대하며 기도한다.

◆김진연

1995년예향워십댄스 선교단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영감 있고, 수준 있는 워십댄스 작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선포해 오고 있으며 예배 안에서 춤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몸의 언어로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배의 도구로 사역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예향워십을 통해 예배 안에서의 온전한 영적 회복과 효과적 복음전도를 목표로 온 세계 열방을 향해 크게 달려 나가기 위해 준비중이다.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new renewable energy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영화 '신의 악단' 강승완 배우, 대전형 RISE U-늘봄 포럼서 축하 무대

목원대학교 음악학부 동문, '지금 이 순간' '영웅' 열창

지난달 10일 대전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열린 '대전형 RISE U-늘봄 협의체 1차년도 사업 성과 공유·확산 포럼'에서 축하를 맡은 강승완 배우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영화 '신의악단'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강승완 배우는 목원대학교 음악학부 98학번 동문이다.

강 배우는 이날 축하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과 뮤지컬 '영웅'의 '영웅'을 불렀다.

강승완 배우는 목원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며 무대 경험을 쌓았고, 학생 시절 축적한 성악과 공연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뮤지컬과 연극 무대에서 활동했으며, 뮤지컬 '빨래'에서 '뽕' 역, 연극 '룸남비13'에서 '리차드' 역을 맡았다.

영화 분야에서도 활동을 이어가며 투혼, 7번방의 선물, 차이법권, 이웃사촌 등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영화 '신의 악단'에



강승완 배우가 축하를 하고 있다. ©목원대

주연으로 출연해 키보드리스트 '최정철' 역을 맡았다.

목원대학교는 강승완 배우의 활동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동문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 축하 역시 동문이 모교 행사에 참여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자리를 빛낸 사례로 평가됐다.

이희학 총장은 "강승완 배우는 목원대 예술교육이 길러낸 동문으로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며 활동해 왔다"며 "이번 포럼에서의 축하가 행사에 의미를 더하고 후배들에게도 자긍심과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정지동 기자

서울오라토리오, 18일 예술의전당서 모차르트 '레퀴엠'·'테 데움' 연주

서울오라토리오가 2026년 봄 정기 연주회를 통해 모차르트의 종교음악을 무대에 올린다.

서울특별시 지정 전문예술단체 서울오라토리오(감독 최영철)는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87회 정기연주회 '영혼을 울리는 음악회 IX'를 개최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테 데움 C장조 KV 141」과 「레퀴엠 d단조 KV 626」이 연주된다.



지난 서울오라토리오 제81회 정기연주회 - L. v. Beethoven ©서울오라토리오

공연의 시작을 여는 「테 데움」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담은 작품으로, 밝고 힘찬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조화가 특징이다.

이어지는 「레퀴엠」은 모차르트의 유작으로, 인간의 두려움과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염원을 담은 대작이다. 서울오라토리오는 원전에 충실한 해석을 바탕으로 두 작품의 신앙적 깊이와 음악적 대비를 무대에서 구현할 계획이다.

티켓 가격은 R석 15만 원, S석 12만 원, A석 9만 원, B석 6만 원, C석 3만 원이다.

예매는 예술의전당(1668-1352, www.sac.or.kr)과 NOL 티켓(1544-1555, https://tickets.interpark.com)을 통해 가능하다. 공연 문외는 서울오라토리오 (02-587-9271, 9277)로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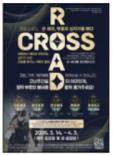
한편 이번 무대는 서울오라토리오가 2011년부터 이어온 브랜드 시리즈 '영혼을 울리는 음악회'의 아홉 번째 공연이다. 그간 요제프 하이든, 주세페 베르디,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안토니오 브로치, 루트비히 판 베토벤 등 거장들의 대작 오라토리오를 선보여온 서울오라토리오는 이번 공연에서도 작품 본연의 구조와 신학적 메시지를 충실히 살린 해석으로 관객들에게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음악적 울림을 전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형구 기자

김포 교회들, 사순절 맞아 '2026 크로스로드 in 김포' 전개

김포 지역 교회들이 사순절을 맞아 도시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지고 걷는 연합 행진에 나선다. 지역 교회 네트워크 '홀리넷(Holy Net)'이 주최하는 '2026 크로스로드 in 김포'가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4주간 이어진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세대 간 신앙의 바통을 잇는 데 초점을 맞



췌다. '온 세대, 부흥의 십자가를 메다' 주제로 다음 세대부터 목회자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해, 각 세대가 맡은 구간을 걸으며 기도와 복음 선포에 나선다.

행진은 매주 토요일 총 4차례 진행되며, 회차별로 약 10km씩 김포 전역을 돈다. 참가자들은 2m, 20kg 상당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구도심과 신도시, 이주민 밀집 지역 등을 지나며 지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일정은 ▲3월 14일 다음 세대 구간(고촌~사우) ▲3월 21일 청년 구간(결포중앙공원~구래광장) ▲3월 28일 장년 구간(양촌~동진~하성) ▲4월 3일 목회자 구간(하성~누산리)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4월 3일 오후 8시에는 김포동산교회에서 연합기도회가 열려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주관 단체인 워십퍼스 무브먼트 측은 "십자가의 무게를 몸으로 경험하며 고난

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진이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지역 교회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차별 행진은 선착순 20명으로 제한 모집하며, 연합기도회는 별도 인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3월 9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문의: 차유나 전도사(010-7297-1674) 노형구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만나교회 40 하나님의 손길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좁은 문, 좁은 길)	00 산정현강단(김관선)(997회) 30 TV강단 감사드림(차영아)	10 김재원의 광야예찬(4회) 김의신 의학박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대구번아-이지훈 30 생명의 말씀 동안-김형준	20 GOODTV 오늘의 찬양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5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665회)	00 생명의 양식 서산성결(김형배) 30 한소망 말씀 (최봉규)(160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14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20회)
	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계산재일-권오규 50 생명의 말씀 수지 기쁨의-김원태	1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답 20 사람의 메시지 수원순복음(이요한) 50 비전설교 대한 (윤영민)	30 휴먼네트(34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83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4회)	00 새중앙교회 주일예배할함 황덕영 목사
	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40 서정희의 매일성경(4회)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체인지 더 월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210회)	00 하나님의 음성(177회)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448회) 민수기 25강	00 복음강단 에버그리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창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9:00	00 워너블우먼(21회) 5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요나 1강 서정오 목사	30 행복한 쉼터 아델포이 (임동환)	0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539회) 4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6회) 50 구약의 세계로 (오상소)(22회)	10 새롭게하소서(11059회) 정학영 대표 1부	00 글로벌 신앙토코소 핫오후(49회) MBTI가 뭐라고... 40 믿음의 리액션(26회) 제주도 2부
	10:00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00 아버지 나의 아버지	20 걸어서 이스라엘 시즌2(5회) 50 청춘찬양단(4회)	00 CBS NEWS 10 20 잘 믿고 잘 사는 법(326회) 40 목사님 궁금해요(146회)	20 성지가 좋다(519회) 갈릴리로 가는 순례길 5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148회)
11:00	00 7000미라클-예수사랑여기에 행복한 교회 / 이성주 목사 50 신앙에세이	00 사람의 메시지 전주완산 (유병근) 30 사람의 메시지 남서중앙(따종진)	1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261회) 50 예수동행일기(9회)	00 울포럼(716회)	00 소문난 성경교실(645회) 장찬영 목사 여덟 번째 3강 목중서신 1: 기록의 정립 30 CN 크리스천 월드뉴스(174회) 50 말씀의 창 포항동부교회 김명재 목사	
오후	12:00	00 CTS뉴스 30 생명의 말씀 경산중앙-김종원	00 GOODTV 뉴스 30 명사들의 명강	1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6회) 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은누리교회)(525회)	00 TV강단 오병이(권영구) 30 오직예수 (이영훈)(930회)	20 복음강단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비전메시지 바른교회 조경현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풍성한-김성근 3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40 서정희의 매일성경(4회)	00 사람의 메시지 안영생명나무 (손영숙) 30 GOODTV 특별기획 패러독스에 갇힌 천년의 시간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317회) 20 [말씀] 윤길중 목사(영동포교회)(82회)	2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58회)	30 김재원의 광야예찬(4회) 김의신 의학박사
	14:00	00 [생방송]Calling GOD(2443회) 50 내가 매일 기쁘게 구자역 목사&신승주 사모	00 GOODTV 특별간증 2025 감사특방 12세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331회)	00 말씀의 힘 우연동(정준경) 30 새롭게하소서(11409회) 송경준 간사	20 풀다보면(8회) 요셉 1
	15:00	40 7000미라클-예수사랑여기에 행복한 교회 / 이성주 목사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말씀] 김우준 목사(지구촌교회)(3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446회) 마태복음 20장	00 2026 명성교회 3월특별사백집회
	16:00	30 생명의 말씀 신촌성결-이정익/박노훈	00 행복한 쉼터 소생 (강복렬) 30 행복한 쉼터 대구동신 (문대원)	00 하용주 목사의 창세기 강해(40회) 4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6회) 50 [말씀] 김형익 목사(번살롬교회)(413회)	10 맨투맨 처치(110회)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6회) 50 하나님의 음성(176회)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48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20회)
	17:00	00 생명의 말씀 새예배-소강석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더 메시지 소진우 10 기대성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전 부흥회 40 아베스의 기도	30 [말씀] 양준길 목사(필그림선교회)(619회)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3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847회) 50 영혼의 양식_성경동화(김주철)	00 말씀의 창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 30 말씀의 창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소명중앙-김대성 30 TV찬양예배 만나교회	10 비전설교 대전태평 (한상현) 40 더 깊은 울림 마커스 워십	10 2025 은누리 사역축제 (지금 여기, 사도행전) - 선택강의(9회) 50 2026 KOSTA WORLD IN JEJU(5회)	00 TV강단 성남빛나는(서학복) 30 산위라마야 예배 (김영준)(276회)	20 대한민국 복음이 담이다 30 말씀의 창 엘드리교회 임병재 목사	
저녁	19:00	2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30 설레는 시나이 토코소 백설기(24회)	1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50 2026 KOSTA WORLD IN JEJU(5회)	20 만나나(17회) 30 TV강단 예림(정은주)	00 비전메시지 광주새생성교회 김시은 목사 30 스페셜 오직주님 영성의 워십(416회) 김하나 목사
	20:00	30 생명의 말씀 강남중앙-장찬영	1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40 훈민복음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THE NEW 하늘빛항기(20회)	00 생명의 시대(31회) 50 CBS 교회소식(1040회)	10 비전메시지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40 복음강단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21:00	00 메신저스 남편 목사 30 서정희의 매일성경(4회) 50 CTS뉴스	10 GOODTV 특별기획 느보산에 남겨진 모세의 기적을 찾아 40 GOODTV NEWS	00 갈보리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홍규)(4448회) 민수기 25강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40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108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요나 1강 서정오 목사	0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30 충성! 은혜로(49회)	00 CBS NEWS 10 20 CBS 스페셜 제46회 전국 목회자 평신도 전도동력세미나(44회)	00 CN 크리스천 월드뉴스(175회) 20 소문난 성경교실(642회) 이석훈 목사 여덟 번째 20강 언어로 보는 시편 -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50 리바이즈 워십
	23:00	10 [CTS믿음의 명작] 별세목회자 이종표 목사의 죽어간다 신대 제4부 별세의 상급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노드득	10 RT. 캔달의 말씀과 성령(237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3월 05일 5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6회)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5회) 30 하나님의 음성(177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4회)	00 풀다보면(8회) 요셉 1 4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5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148회)
	24:00	00 Calling GOD(2443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훈민복음 40 더 깊은 울림 한성 워십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방주태GO(18회) 4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선한목자교회-(60회)	10 새롭게하소서(11059회) 정학영 대표 1부	00 강연소 통(51회) 부모와의 관계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만든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00	00 더 초전 시즌5(더빙)(2회) 15세	00 유명목 목사의 만난 이야기 10 조용기 목사 명설교	0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248회) 4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319회)	0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59회) 40 말씀의 능력(전태식)(572회)	00 고품격 크리스천 처트 토코소 : 처트(45회) 기독교 시 이야기 30 성지가 좋다(519회) 갈릴리로 가는 순례길
	2:00	10 7000미라클-예수사랑여기에 행복한 교회 / 이성주 목사	1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이주원 목사(산마루교회)(412회)	30 TV강단 강남중앙합체(최병락)	00 THE 금금(7회) 더 궁금한 '이단' 40 강령심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65회)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요나 1강 서정오 목사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211회) 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850회)	00 울포럼(715회)	00 오직주님 영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박중순 목사 30 내 영혼의 찬양	00 힐링스토리 1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영안장로 (양병희) 5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말씀] 황성민 목사(창동명광교회)(247회)	00 CBS 성서학당 (베요한)(4447회) 창세기 17장 50 CBS 교회소식(1040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48회) 김선도 목사 30 성지가 좋다(519회) 갈릴리로 가는 순례길